今週一言

사람이 백세향수 누릴지라도 게으르고 정진할 줄 모른다면 하루를 살아도 법을 위하여 용맹정진하는 것만 못하느니라.

〈法句經·술천품 13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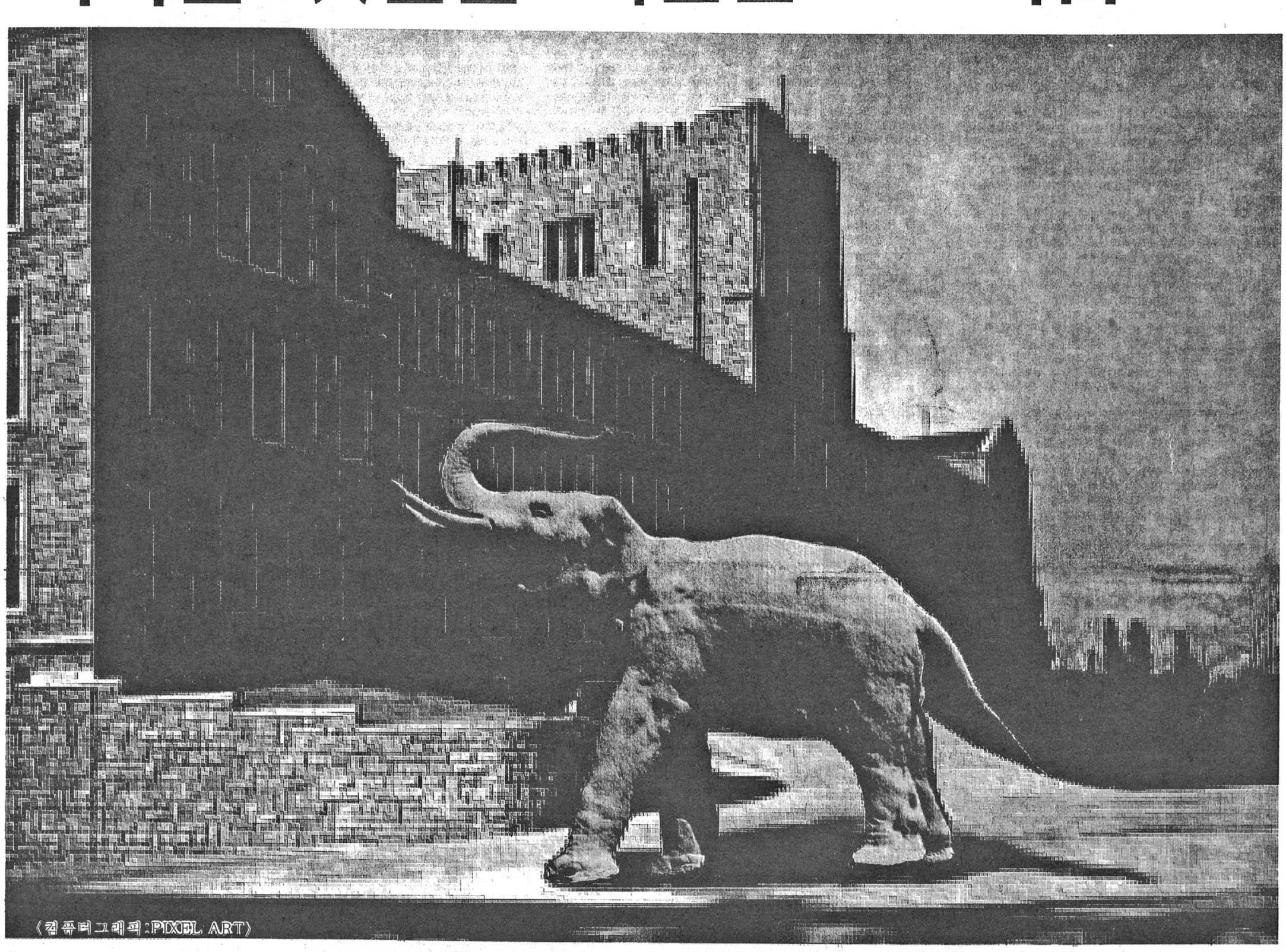
東大新聞

날 행 인 민 병 천
편 집 인 조 병 순
주 간 최 순 열
편 집 국 장 안 재 봉
편 집 장 이 병 민

펴 낸 곳: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3가26(☎260-3492)
FAX (02)279-1270
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707(☎41-4132)

제1099호 〈주간〉 1964.1.1 등록번호 다-10 1955.10.13 제3종우편물(가)급인가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92년(단기4325년)5월6일 〈수요일〉 【 1 】

거룩한 첫발을 내딛던 그 마음으로



〈컴퓨터그래픽:PIXEL ART〉

개교 86주년 기념 축시

찬란히 열려오는 화엄의 하늘 아래

최 순 열
〈시인·본사주간〉

우리 모두 꽃잔치 나설꺼나
우리 모두 두억시니 될꺼나
허영과 허위의 화판은 떼어팽개치고
이날 여든여섯 수레를 끌어온 자랑을
나누며, 낡은 두껍일랑 벗어던지며
바늘귀같은 마음도 벗어버리고
오로지 우리 한몸이 되어야 하리
앞선자의 발자국을 지우지 않고서는
새길을 나설 수 없는가,
새파랗게 뻗쳐오르는 들풀을 상하지 않고
무너진 석탑을 다시 세울 수 없는가,
주저하는 우리의 비겁을
파도치는 역사의 용광로에 던져
목청 높은 함성이 아로새겨진
피빛 땀이 무늬진
장엄한 정법의 칼로 벼루어내면
비로소 찬란히 열려오는 화엄의 하늘 아래,
이제 그만 영롱한 꿈에서 깨어나
덮혀진 책 구겨진 연필을 부등켜안고
쓰디쓴 오늘을 뻐아프게 새길
거룩한 분노를 꽃피우자
덧없는 잿더미를 만듦이 아니라
향기로운 도량을 우뚝 세우고저
우리 모두 굳센 염원을 엮어
연꽃마을에 잠든 우리 이웃들을
일깨움으로 불러모으고, 또한 우리는
새롭게 깃대를 세우는
아름다운 반역자가 되자
긴 잠에서 큰 기지개로
이윽고 깨어나는 선재들이여
부릅뜬 눈방울마다
진리의 횃불을 켜달고, 보아라
묵은 먹물 스민 완강한 화강암의 벽을
뚫고 차오르는 청동빛 코끼리의
군육마다 무섭게 이글거리는 도약의
말씀이거나 칼날
이제 우리가 준엄하게 거머쥐고
앞서 내달아 가야하지 않겠는가

사설

동국은 역사적 사명에 부응하고 있는가

동국대학교는 '민족대학'이다。 광무10년(1906년) 당시 홍월초(초대 이사장), 이보담(초대교장)등 불교계 선각자들이 일제침략에 맞서 민족자본으로 민족의 운명을 개척할 인재를 기르고자 명진학교를 세운 데서 동국의 역사는 시작된다。

이후 불교사범학교·불교고등강숙·불교중앙학림·불교전수학교·중앙불교전문학교·혜화전문학교·동국대학, 그리고 동국대학교로 승격, 발전하기까지 두차례의 강제폐교를 당한다。 첫번째는 '불교고등강숙'시절 학생들이 조선불교회의를 조직, 본사주지들의 친일태도에 반대운동을 벌이다 주지들에게 폐교당한 것이고 두번째 폐교는 3·1운동이후 일제에 의한 것이었다。 이처럼 동국86년의 역사는 명진학교 건립 당시 선각자들의 뜻이나 두번의 강제폐교, 그리고 최근의 발자취에서도 나타나듯이 외세의 탄압에 항거하며 민족을 구하자 했던 민족자주화의 전통을 지니고 있고 이는 또 불교자주화의 역사와 그 맥을 같이 한다。 그리고 지금도 민족동국이 가져야 하고, 선도적 위치에 서야 할 민족자주·불교자주화의 임무는 시대적 사명인 것이다。

그러면 개교 86주년을 맞는 동국대학교는 그 역사적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 선각자들이 명진학교를 세우며 가졌던 그 비장함으로 간직하고는 있는가。 아니 그보다 우리 스스로 즐겨 동국의 대명사로 내세워왔던 '명문사학·동양최고의 민족사학'의 위세 당당한 모습은 지금도 유효한가。 이것이 개교 86주년을 맞는 전 동국인의 물음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국내 사학중 86년이라는 유구한 전통과 현재의 정체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있는 대학이 민족동국이며 더이상 전통만으로 명문을 고집할 수 없기 때문이다。

1946년 혜화전문학교가 '동국대학'으로 승격되고 이어 53년 2월6일 동국은 국내 최초의 종합대학교로 변모한다。 그리고 수많은 우수인재를 배출함은 물론 불교·문학 등의 분야에서 한국정신문화사의 증추를 담당한다。 60·70년대 명실상부한 명문사학의 권위를 구가하며 그때 배출된 인재들이 오늘도 사회각계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한국정신문화를 살찌우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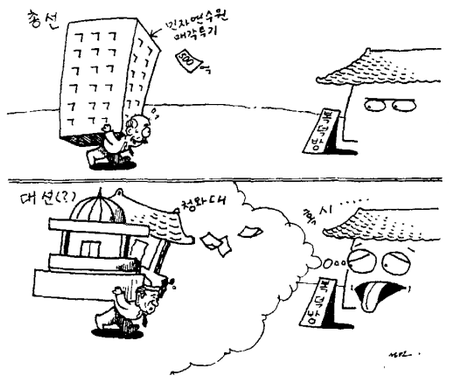
그러나 지금 동국의 현실을 살펴 볼때 과거 명문사학의 위세는 단지 현실의 도피처 밖에 되지 못한다。 동국은 개교이래 여러차례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왔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보는 동국의 현실은 20년 동안의 정체와 재단의 투자의욕 부재로 동국에 심각한 불안감과 교수·학생·직원에게 무력감을 던져주고 있는 모습이다。 다시 말해 동국중흥의 새로운 불씨를 찾아내기 어려운 침체국면인 것이다。

이러한 난관은 어디에서 기인했는가。 그리고 옛 명성에 걸맞게 다시 명문사학으로 부흥할 순 없는가。 동국이 처한 총체적 난국에 대해 우리는 최근 몇년간 다각적인 분석작업과 그 대안을 제시했었다。 그렇다면 동국의 현재 모습은 어떠한가。 한마디로 개교 80주년기념관의 조감도만 있을 뿐 그 실체는 없다。 그 무수한 고민과 대안만 무성했을 뿐 동국정체현상은 날로 깊어만 가고 있는 것이다。

개교 86주년을 맞는 본교는 지금 뼈아프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단대별 특성을 살릴 기본시설조차 미흡한 교육환경의 심각성은 물론이거니와 61년에 세워진 도서관, 임시방편적으로 이리저리 활용해오고 있는 절대공간 부족현상—정녕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내세울만한 자랑거리를 찾을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제, 지켜지지도 않을 장기계획의 제시나 민족사학의 전통 당위론이 아닌 현실을 직시하고 자주적 동국중흥의 길로 전동국인이 자성의 마음으로 중지를 모을 때다。 지금 동국이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결코 문제해결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함을 깨달아야 한다。

東國漫評

박 성 민



열린글터

독자여러분의 생각이 담긴 글, 사진, 만화를 받습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불신검문 관련법

영장없는 소지품·신체 수색 명백한 불법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201조) 긴급구속, 현행범의 체포등은 일정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영장없이 행해질 수 있으나 48시간(특별시항일 경우 72시간)이내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당해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동법 206, 207,212, 213조의2)

이상이 법률에 기재된 연행, 불법구속의 사항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것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우리는 학교주변, 집회부근에서 전경에게 신분증이나 소지품, 신체등을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수색당하는 경우를 보아왔거나, 직접 당해봤을 것이다。

법조문을 살펴보면 신체·물건의 수색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형사소송법 215조, 예외규정 동법218조 소유자가 임의로 제출할 경우 수색압수가능) 하지만 수사의 실제는 압수 수색영장 없이 수색을 행하여 증거물이 될만한 것을 압수하고는 수사기록에는 소유자 등이 임의로 제출한 것으로 기재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경찰관은 범죄관련자라고 판단되는 자등을 정지시켜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고, 그 질문을 위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나(이른바 '불신검문') 동행 요구의 경우 당해인은 동행을 거부할 자유가 있고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그러한 자유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동행을 한 경우에도 3시간을 초과하여 경찰서에 머물게 할 수는 없다。

한데, 이상의 법규정이 지켜지고 있는가? 경찰·수사기관은 거의 모든 경우에 영장없이 피의자를 강제연행하거나, 관서로 소환하여 조사한 뒤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때서야 구속영장의 발부절차를 밟는다。

그동안 당해피의자는 '신병확보'의 상태로 '영장대기자'라고 불리우면서 보호실등에 '보호조치'되었다가 법관의 영장이 발부되면 그때서야 그 영장에 구속 집행 일시, 장소를 기재하는 등 피의자를 구속하는 절차를 밟는다。(영장청구 기각이면 당연히 피의자는 석방)

이와같이 석방 또는 영장에 의한 구속의 경우, 석방이나 정식구속에 이르기까지 사실상의 구속기간은 피의자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보호실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처리되고 만다。 왜냐하면 긴급구속 또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영장이 발부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살아있는 법은 다음과 같이 성문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경찰관 기타 수사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는 자(특히 운동권 놈들은)는 영장이 없어도 강제로 48시간 이내 길게는 72시간동안 경찰관서 등에 보호 조치해도 무방하나 위와같이 보호조치된 기간은, 구속기간으로 인정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이 창 규〈법과대 법학과〉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 한 기 씨

서울 캠퍼스 기능직 근로요원반장을 맡고 있는 이한기(57)씨。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닦으면서 "혼자 일하는 것도 아닌데…。 옆의 동료들이 도와준 덕택이지 제가 무슨상을…。 송구스럽기만 해요"라며 겸손해 한다。

본교 직원노조의 진짜노동자(?), 기능직요원은 현재 이씨를 포함해 모두 7명。 그중 이씨가 오는 7일 개교 86주년을 맞아 직원에게 주어지는 공로상을 받게된 주인공이다。

이씨가 우리학교에서 일을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21년전의 일이다。

매일 아침 7시경 출근에 특별히 정해진 퇴근시간 없이(실제로는 오후5시가 퇴근시간) 학내 시설물들에 대한 정비와 보수작업을 한다。

하지만 현재의 인원으로 학내전반을 다 관리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한참 바쁠땐 여기 저기서 손봐 달라는 의뢰들이 짜증스럽고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다고。

그러면서도 이씨가 지금까지 자신의 일을 묵묵히 참고 해온데 대해 자신은 "내가 맡은 일에 관해서는 나 스스로가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한다。

내년 2월에 정년퇴임을 앞둔 이씨의 바램은 남아있는 동료들이 좀더 쾌적하게 쉴수있는 적당한 장소로 근로요원 대기실을 옮기는 것이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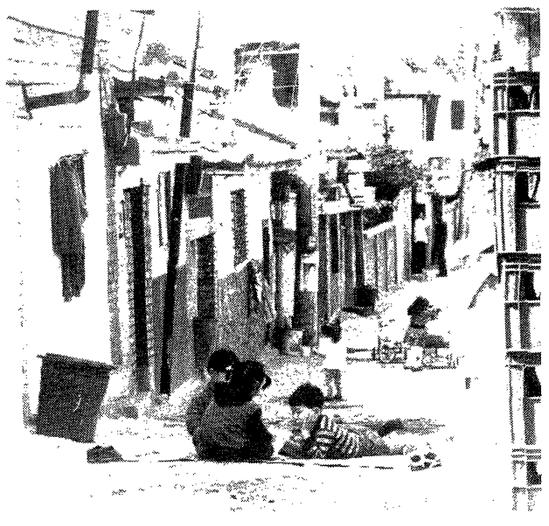
그의 이마위에 흐르는 땀방울들이 새삼 빛나보인다。

〈조용수 기자〉

초대석

엄마없는 하루

이 미 숙〈예술대 미술학과〉



족구로 인해 수업 방해돼서야

강의없는 시간에 만해 광장에서

강의가 끝난 오후, 여기 저기 모여 앉아 담소를 즐기거나, 바지를 걷어 올리고 족구를 하는 학림마당은 푸릇푸릇한 젊음과 건강한 웃음이 넘친다。 버젓이 주차된 자가용들로 인해 더욱 좁아지긴 했지만, 그 좁은 공간에서도 활기넘치는 생명력을 느낄 수 있다。 열과 성을 다해 뛰고 나서 목줄기에 흐르는 땀을 씻고 났을 때의 상쾌함, 운동을 통한 서로간의 유대。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소중함이다。 그러나 여기,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두가지 문제가 있다。 시간과 공간, 바로 그것이다。

첫째, 시간의 문제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함께 사는, 더불어 사는 것이 옳은 삶이라면, 강의 시간은 피해서 족구를 해야 하는게 아닐까 생각한다。

둘째, 공간의 문제이다。 물론 주차도 심각한 문제가 되지만, 더불어 족구하는 학우들로 인해 언제 공이 날아와 강타할 지 몰라 주춤주춤비켜 '동악선생시단 유허비'앞 잔디밭을 횡단하는 학우들이 많은데 이러다간 그 푸르른 잔디도 혜화관 앞 잔디밭처럼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또한 얼마전 학림 학우들의 정성으로 메마른 땅을 일구어 꽃밭을 만들고, 아침 일찍 등교해서 물도 주며 정성스레 보살피고 있는데, 혹 공에 맞아 부러진 꽃들의 상처를 보셨는지。

이런 두가지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보자면, 강의 중이건 강의가 끝난 시간이건 족구를 하고픈 학우들은 장소를 만해 광장이나 학생 회관 앞으로 옮겨 보다 넓은 광장에서 마음껏 뛰며 목청껏 외쳐보는게 어떨런지。

동악사랑,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이 수 화〈사범대 국교과〉

알 림

모니터 여러분!

중간고사 관계로 다소 부진했던 활동 다시 시작합시다。

초여름의 신선함으로 힘내세요。 그리고 열심히 합시다。

모니터 모임이 오는 15일(금) 오후6시에 본사회의실에서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십시오。

—여론매체부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열린글터(2면)'다향관 식당 영업시간연장'

직원들에게 무리한 노동 강요로 당장은 어려워

다양한 의견수렴통해 불편 최소화할터

다향관 학생식당을 학생복지위원회에서 직영한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여러면에서 예전보다 개선되어 학우를 위한 식당으로 기여한바도 있겠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너무 많은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와중에 동대신문의 "열린 글터"를 통하여 식당에 대한 애정을 보내준 학우에 대하여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또한 학생식당은 학우들의 애정과 비판속에서만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식당이 이용자에게 최대한으로 편리성과 먹거리의 양과 질을 보장하는 것, 그리고 부수적으로 구내식당이라는 특성에 의한 제반 서비스제도(예를 들면 학생회행사의 공간대여, 각종행사의 먹거리 담보등)등은 식당이 담보하여야 할 기본적 내용입니다만 반면에 식당이 운영되는 기본적 조건들은 운영주체(직원=노동자), 이용자(소비자=학생), 기본시설, 운영제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상황속에서 학우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점이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실정인데 가장 어려운 문제는 식당의 기본시설의 상당한 부분이 기계화되지 못한 관계로 전적으로 사람손에 의존해야만 하는 현실속에서 운영시간의 연장이란 직원들에게 무리한 노동을 강요하는 결과가 됨으로 이러한 점이 학우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나서는 가장 힘든 문제입니다。 그러나 학우들을 위한 식당이 되기 위하여, 운영시간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학생복지위원회의 임원과 식당직원들이 합심노력하겠습니다。 지면의 한계속에서 식당의 지위와 역할을 충분히 해명하지 못하는 점이 아쉽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중이며 학우들이 요구하거나 비판하는 점들을 적극 수렴하여 해결하려는 자세속에서 식당을 운영하겠습니다。

이 진 선

〈학복위 총지배인〉

목멱골

⊠축하합니다

■지나간 5월2일은 걸리버(영조)의 생일이었고 5월4일은 문과대 부단님인 주환이의 생일이었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푸르른 5월을 보내셨으면 해요。

—문과대 날뻔과, 그 충실한 여종, 영문과의 여왕벌, 문과대노래패의 엄마 美

■우리학과 진보학회 '정치경제학연구회'발족을 축하합니다。

—야간강좌 경제학과 정·경·연교육부장

■역사를 사랑하며 만난 사람들。 그곳에서 인간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민족사연구회원 은종, 현종이형, 상언이, 옥근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5월5일 회장

■4일 디딤돌을 밟고 올라선 용태와 8일 상현이형의 생일을 일문인의 시선을 모아모아 모아서 축하합니다。

—92일문일동

■태주형。 생일 축하했었어요。

—호빈, 배F

■어린이날은 방현이랑 재용이 생일!! 늙어서도 어린이날되면 마냥 좋아만 할꺼니? 생일 축하혜。

—주철이

■재용이는 갔지만 생일은 영원하다。 생일을 축하해。 국경일! 어린이날!

—재상, 성수

■8일날 율학교 생일 추카해요。

—혜리미가

■은주야! 고맙다。 생일축하한다。

—호빈

■5월5일은 김훈이 태어난 날。
5월5일은 그래서 재수없는 날。

—컴퓨터공학과 가짜대표 태연이가

■백상16기 형주니 귀빠진날 추카혀요。

—백상16기일동

■희정, 선희야 생일 축하한다。

—MECS 13기일동

■태훈아! 어느덧 네가 테이난지 스물두해나 흘렀구나。 정말로 축하한다。

—농경91상욱, 인국

■수·수·수。 단순·무식·과격의 3수중 막둥이 인수세끼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선 깜씨

■경민아! 떡순이의 생일을 축하한다。 네 생일날 떡 많이 먹어~。

—캔디

⊠수고하셨어요

■농경학우 여러분! 농활 다녀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농경91 버드나무

■은경, 동순, 용순, 홍권과 세파리성 농활 잘 다녀왔죠? 수고했어요。

—지교91공주들

■東佛법우님! 제등행렬 준비 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농활 갔다오시느라 힘드셨죠? 이것을 계기로 더더욱 뭉칠 수 있는 지교과였으면 해요…。

—지교 to현

■민중연대의 깃발들고 농민분들과 함께 땀을 흘리고 돌아오신 철학과 학우들 수고하셨습니다。

—철학과 학우일동

⊠알립니다

■상은회에서 5월17일 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장소는 차후공고。 10시까지 5천원 들고 나가서 놉시다。

—또 희장

■〈일본어로〉
A:일문과는 5월8일 어디로 갑니까?
B:예。 일문과는 우정과 단결을 목적으로 강촌에 갈 예정입니다。
A:그렇습니까? 즐겁길 바라겠어요。

—일문 92

■손짓사랑회의 똘똘이 성수가 이사합니다。 운수 좋은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성수 이사가는 날은 공휴일입니다。

—내가

■5월9일은 광남고가 처음으로 동문모꼬지를 가는 날입니다。 모두가 참석해서 즐거운 시간을 갖고 고등학교시절을 회상해 보며 지냈으면 합니다。 많이 참석하세요。

—3기임회장, 3기 임시회장,성효

■4월29일자 신문 후속편—
시계들어있는 필통 아직도 못찾았어요。

—92지교女

⊠열심히합시다

■노랑샤쓰의 선화와 DUCA의 ○○선배와의 앞날이 창창하길。

—DUCA member

■교육학과 1년。 모꼬지 잘 다녀오세요。 모두 가시구요。

—사랑부장

■시험을 잘 보았든 못 보았든 모두다 기공과입니다。 모두 다시 기운차립시다。

—동기생

■행정학과 선배님들 행시 잘 보십시오。

—후배일동

■나의 마니또 혜진(구의에 사는 女)아! 못해준게 너무 많아 미안하다。 그동안 나에게 힘든 일이 너무 많아 너에게 신경써 줄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 그 이쁜 마음으로 날 이해 해 줄래? 나중에 같이 술이나 마시며 야기나 하자。

—너의 92지교 마니또가

■우리 92의 힘으로 연응회를 거세게 일으켜 세웠으면 합니다。

—단국·전선 동문중 구여운 92가

■5월 '사랑의 찻집'준비에 여념이 없는 '사랑동이들' 언제나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삶의 아름다움을 잃지 않기를…。

—영원한 대부, 어린왕자

⊠그리고…

■불구용품판매에 폭발적 열정을 쏟아부어 주신 전동국인에게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감사하는 선학과 학우일동!

■우리 故남태혁, 안성모학형의 극락왕생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랑으로 함께하는 인철과3년 합장

■동악광장은 낙서판이 아니란걸 아시죠? —동대신문사 여론매체부

■동대신문사 역대 선배님들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사주신 책장 마르고 닳도록 열심히 사용하겠습니다。

—후배들 올림

온방골

⊠축하 합니다

■탈패 11기 선영선배, 14기 재교의 생일을 축하해 주자! 왜 태어났냐? —14기 大石 지누

■5월3일은 東國法論 편집장의 생일입니다。 생일 축하해 주세요。

—짭새 친구

■5월5일 퇴깽이(최민영)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종국 배드민턴 일동

■회계학과 4년 이창원 학형의 5월6일 26번째 생일을 축하 합니다。

—하누리회 일동

■사랑할수 밖에 없는 우리 서니 생일이 오는 13일이랍니다。 서니를 아는 많은 친구들은 22번째 서니의 생일을 꼭 축하해주길 바랍니다。

—사랑할수 밖에 없는 진이가

⊠알립니다

■이번 임석대동제에서 총대의원회에서는 5월 15일 여학생휴게실에서 '6장기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참가신청은 14일까지 총대사무실 및 백상탑앞에서 받습니다。

—제9대 총대의원회

■경남고·부산여고 모꼬지 갑니다。 5월9일 A·M10시 고속버스터미널. 이번 모꼬지로 좀더 활기찬 동문회가 되도록 노력 합시다。 —동문회장

■'닫힌 교문을 열며'를 상영합니다。 오는 5월12일 오후1시, 3시, 7시에 소강당Ⅱ에서 상영이 있습니다。

학교교육의 허구성및 참교육 쟁취를 위해 투쟁하시는 전교조 선생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영상에 옮긴 내용입니다。 많은 호응 부탁드립니다。

—제9대 함께가는 총학생회 연대사업국

■상구기 선배님, 멋진 국군아저씨가 되세요。 —사복92—91 학번 일동

■우와 탈패가 축하공연을 한다나, 역시 잘 나가는 군! —13기 뜰

■선배님 Joint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습니다(?)。 기다려 주세요。

—대성고 동문회장 뺀질이가。

■사랑하는 나의 석구야, 너의 모습을 지저분한 동아리방에서 다시 한번 볼수있다면 이 선배 이제 죽어도 한이 없겠다。 —화

■따스한 봄날입니다。 그러나 나의 방짝은 고민에 쌓여 있습니다。 방짝 주형에게 용기를。 —불·동이 지혜。

■FIS창단을 추카합니다。 끊임없는 만남으로 싸랑과 우정이 돈독해지길 진심으로 바라며…

P·S 상현아 미안해。 창단멤버에서 너 빼서 —FIS·BOSS

⊠수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시낭송회, 백일장 준비하느라 문학회원 여러분 수고 하셨어요。 앞으로 문학사랑의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동국문학회가 됩시다。

—영。

■'용전그리 및 도암1리에 농활갔던 인문데 농활단' 아낌없이 놀고 열심히 일했죠? 건강한 모습으로 여름에 다시봐요。 —팀장, 사과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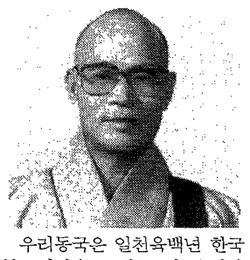
■검게 그을린 여러분들의 모습속에서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더불어 할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더욱 건강하게 여름에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총학생회

동악광장

개교 86주년을 맞이하여

이사장 기념사

개혁의 의지로 새역사 일구어야



오늘 우리 동국대학교 개교 86주년을 맞이하여 이 뜻깊은 날을 기념하면서 본인은 무엇보다도 우리 동국의 씨앗을 뿌려준 불교계 선각들의 혜안과 숭고한 교육구국정신을 높이 기리는 바 입니다.

우리 동국은 지난 86년동안 이처럼 여러 선배들의 봉사와 노력에 힘입어 지금은 8개 대학원과 17개 단과대학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주캠퍼스와 동국의료원 운영을 비롯 기초과학센터, 첨단 기자재, 해외자매결연등은 우리 동국의 내실은 물론 외형적으로도 손색없는 대학으로 자리잡게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 동국은 민족정신의 응결체로서 일제하에서는 자주독립을 위하여, 또 해방후에는 민족·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일익을 담당해온 점에 대하여 자부를 느낍니다.

우리동국은 일천육백년 한국불교정신을 토대로 한 유일한 불교종립 종합대학이라는데 무한한 희망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교가 우리 역사에 찬란히 기여했던 호국정신과 문화를 다시 이 시대에 실현해 나가야 한다는 소명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은 여러 갈등과 모순극복, 국가안정, 조국통일등 본질적으로 개교당시와 큰 차이없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을 계기로 다시금 동국이 필연적으로 존재해야 할 확실한 위상을 세워 나가야겠습니다.

민족사학의 전당으로서, 또 불교정신의 구현을 위한 토대로서 우리는 더욱 도약해야 합니다.

재단에서는 이러한 동국가족의 발전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보다 쾌적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설확충, 교육기자재 도입 등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는 복고적 지성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빛나는 전통과 역사에 대한 자만에 머물지 않는 겸허한 자세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보수에 얽메이지 않는 개혁의 의지로 학문의 수준과 성과를 높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교수, 학생 모두가 묵묵 정진하는 진지한 자세도 중요하지만, 종단, 재단, 학교, 동문들의 화합과 단결에 의하여 내일의 희망찬 역사가 이룩된다는 엄숙한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 5월 7일

이사장 **오 인 갑**

총장 식사

동국중흥에 한마음으로 동참하자

동국학원 오녹원 이사장님을 비롯한 이사님과 대덕스님들 그리고 동창회임원및 내외 귀빈을 모시고 개교86주년 기념식을 갖게된 것에 감사하며 경하합니다.

또한 이 대학의 발전을 위해 십년, 이십년, 삼십년간 근무한 여러분과 애쓰시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주지하듯이 우리 대학교는 불교계의 지도자들이 불교이념에 바탕을 둔 구국과 불국정토 및 근대화를 목표로 하여 세운 유일한 불교 종립대학교입니다.

학교가 설립된 뒤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면서 86년간 건학이념을 구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오래다는 것만으로는 자랑일 수도 없고 만족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단지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일 수만은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건학이념에 따라 지혜를 체득하고 자비를 실천할 훌륭한 인재를 기르는데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선인들이 이루어 놓은 명성을 더더욱 선양할 테세를 갖추었는지를 자성하는 자리여야 할 것입니다.

낡은 껍질을 깨고 새로 태어나는 아픔이 없으면 발전과 진보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역사가 오래다는 것과 창조는 별개의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미래로 지향시키면서 새롭게 창조하는 동국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니고 있는 무서운 잠재능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동국인 모두는 한마음으로 동참하여야 할 것입니다. 창업에 못지 않게 어려운 것이 중흥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중흥운동을 벌여야만이 오늘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세계로 뻗는 대학, 손색없는 교육환경, 알찬 교육내용, 공부하는 학생과 연구하는 우수교수가 가득찬 캠퍼스의 분위기 등으로 특색있는 대학을 창조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는 민족의 명문사학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세계 속의 대학으로 우뚝서는 100주년을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근속한 분과 연구와 근무에 모범을 보여 표창을 받는 분들에게 다시금 축하와 감사를 드리고 영원한 우리 문화의 고향 동국의 발전과 동국가족 모두의 행운이 부처님의 가호아래 아루어지기를 축원하면서 기념사에 가름합니다.

1992년 5월 7일

총장 **민 병 천**

개교 86주년 기념식

장기근속·근무자 76명및 공로직원 표창도

개교 86주년 기념행사가 오는 7일 오전 10시 중강당에서 오인갑이사장, 민병천총장을 비롯한 교무위원, 교직원,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이날 행사는 삼귀의례, 최현각(선학)정각원장의 발원문 봉독, 조희영(경영학)기획조정실장의 학교연혁보고, 10년. 20년 장기근속근무자76명및 공로직원에게 수여하는 공로상 표창순으로 이어진다.

매년 개교기념행사를 당일(8일)에 실시해오던 것을 올해는 하루 앞당겨 치뤄지게 된것에 대해 행사준비 관계자는 "매년 개교기념일이 휴강되는 이유로 학생들의 참여는 비교적 저조했다"며 학생참여 유도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장기근속자 및 공로자는 다음과 같다.

◇20년 근속표창=△오국근(영문학) △이순륭(경영학) △장재명(전기공학) △이문보(건축공학) △오복웅(경주 사무처 경리과장) △신일식(의료원 포항병원 사무국장) △최창선(의료원 경주병원 사무국장) △윤장옥(경주 도서관 사서과장) △이명호(총무처) △안영덕(〃) △황만수(〃) △주하식(〃) △박춘방(〃) △김규수(관리처)

◇20년 근무=△이민웅(농업생물학) △류종기(도서관 사서과장)

◇10년 근속표창=△채택수(선학) △황혜인(독문학) △신용태(일문학) △박영길(법학) △이상현(경찰행정학) △김태홍(무역학) △김용욱(농학) △임영정(역사교육) △박명희(가정교육) △송영방(미술학) △안민수(언극영화학) △오영진(경주 일문학) △김종진(경주 한문학) △최영태(경주 생물학) △이형재(경주 수학교육) △권도혁(경주 법학) △김시배(경주 경제학) △채대석(경주 무역학) △최상영(경주 회계학) △오광진(비서실) △황주환(교무처 교무계장) △이근재(교무처 학적계장) △김성근(교무처 학술계장) △라병욱(학생처 학생계장) △한문우(총무처 인사계장) △이성진(대학원 교학계장) △박동수(불교대학원 교학계장) △김영민(산업기술대학원 교학계장) △김진광(불교대 교학계장) △엄영학(문과대 교학계장) △이우용(사범대 교학계장) △김두재(도서관) △현명곤(출판부 출판계장) △이정희(출판부) △박승종(체육실 체육계장) △석광열(경주 교무처 교무계장) △임상록(경주 교무처 학적계장) △박두관(경주 학생처 취업계장) △송익균(경주 사무처 관재계장) △문재옥(경주 사무처) △주재권(경주 기숙사 계장) △김계현(의료원 계장) △김수연(기획조정실) △성춘화(교무처) △이복희(총무처) △이영숙(〃) △서천용(관리처) △한현수(〃) △김진수(〃) △김옥자(〃) △임조경(대학원) △함정실(경영대학원) △김상애(교육대학원) △최병구(경주 사무처) △이상진(〃) △안상복(〃) △김영열(〃) △오세원(〃) △권탄준(불교문화연구원 연구원) △박도화(박물관 연구원) 〈이상 76명〉

◇공로표창=△김상식(총무처 비상계획과)—올해 본교 예비군연대가 우수부대표창을 받는데 기여.

△이한기(관리처 관재과)—20년이 넘게 근로반장으로 일해오면서 학교행사의 제반업무를 위해 기여.

△석홍재(경주 사무처 관재과)—작년 태풍등 재해가 일어나 지역주민들이 본교로 대피했을때 임시전기가설등 학교홍보에 기여.

재단이사회 개최

92년 예산안 심의 등을 안건으로

제1백15회 재단이사회가 오늘(6일) 오전11시 타워호텔에서 △92학년도 예산안 심의및 확정 △감사임기만료에 따른 감사재선임 △사학진흥기금융자금 기채승인 요청등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해 열린다.

지난 2월말 이사회에 이어 개최되는 이번 이사회는 3·4월중 소집될 예정이었으나 학교·학생간 등록금협상 마찰로 인해 인상률 조정확정됨에 따라 연기되어 온 것이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쟁점처리 안건으로 92학년도 본교 총예산 4백77억원에 대한 심의를 하게되는데 학교당국의 예산편성보고후 특별한 이의가 없는 한 변동없이 확정될 전망이다. 확정된 예산안은 이후 교육부로 통보하게 된다. 또한 재단감사의 2년임기가 오늘(6일)로써 사실상 만료되는 김천일, 전연성, 김용모감사등 3인감사의 연임에 대한 논의를 가진다. 이어 사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등을 위한 시설자금을 연이율 5%로 융자지원하는 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기채승인 요청이 이뤄진다.

한편 91학년도 결산심의및 기타사항들은 다음 이사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특별학술연구비 수혜자 선정

홍기삼, 배형, 강태원 교수

매년 인문·사회·자연과학등 3분야에서 학문발전공로교원에게 연구의욕고취를 위해 지급하는 3백만원의 특별학술연구비 수혜자로 홍기삼(국문학), 배형(경제학), 강태원(물리학) 교수가 각각 선정되었다.

92년 3월1일을 기준하여 지난 2년동안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저서를 통해 선정한 이번 수상자의 주요논문을 살펴보면 홍교수가 '월명사의 도설가 고찰'등 7편의 논문및 저술이며 배교수는 'Multitrade Bargaining'외 2편, 강교수는 Thermally Stimulated Current of Amorphous Selenium'외 33편등으로 각분야별로 다수의 연구성과물을 축적해 왔다.

한편 이들에 대한 시상식은 개교기념식인 오는 7일 열리게 되며 수해자는 연구논문을 공개학술발표 할 예정이다.

동국인 수계대법회

정각원(원장=최현각·선학)은 오는 7일 오후2시 오녹원이사장을 전계화상으로 '전동국인 수계 대법회'를 정각원 법당에서 봉행한다.

전동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법회에는 교내 교수, 대학원생, 학생, 조교를 비롯해 산하재단 교원등 총1백61명이 계를 받게된다. 법회의 수계의식은 삼귀의례, 반야심경 봉독, 삼보와 계사청함, 개도, 참회, 연비, 수계, 정근 순으로 진행한다. 이날 수계자들은 오계를 지킬것을 다짐하고 각각 계첩을 받는다.

2학기 신규교수 초빙 공고

서울 13개, 경주 11개학과

92학년도 2학기 신규교수초빙이 지난 4월29일 공고됨에 따라 서울캠퍼스 13개학과와 경주캠퍼스 11개학과는 오는 27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이번 2학기 신규교수초빙학과를 알아보면 서울캠퍼스의 경우 지난 1학기에 초빙되지 못한 무역(해운 및 해상보험) 학과를 비롯 당초 2학기 초빙예정 학과, 오는 6월중에 실시하는 학과평가제 대상학과인 물리, 전자공학과 등이다.

또한 올해 신설학과인 기계공학과는 2학기부터 지속적으로 초빙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주캠퍼스는 1학기 미초빙학과와 경주병원 의료진 확대를 위한 교수충원, 기초과정학과로 물리학전공분야를 초빙한다.

특히 이번 2학기 신규교수초빙과정에서 첨부된 것으로는 응용후 수행할 연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2학기 신규교수초빙과 관련 중앙교과과정 학생위원회는 교과위의 조직강화를 통한 교수초빙 시 공개강의 등 학생참여의 보장, 학과별 서류심사 우선원칙, 채용과정의 완전공개 등을 강력히 제기해 민주적 교수 초빙을 실현한다는 방침아래 과단위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사업을 강구중에 있다.

정각원보 창간

정각원에서는 건학이념의 구현과 능률적 포교활동을 목적으로 월보 '정각원보'를 지난 4일 발행했다.

정각원보 발행에 대해 민병천 총장은 "부처님의 교리를 가르치는 학습지와 불자학생들의 신행지침서 및 불교계 소식지로서의 역할을 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교수동정

▲여인형(화학)=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리는 제1백81차 전기화학회와 일본 동경에서 열리는 제1회 서태평양 전기화학심포지엄 참석차 출국.

▲변정용(경주캠퍼스 전자계산학)=지난25일 포항공과대학에서 열린 '제19회 임시총회 및 춘계학술발표회'에서 '객체지향 데이타베이스에서 스키마 수정을 지원하는 동형 클래스 관리' 논문 발표.

본사사령

◇의원면직

▲박기철(경상대 정보관리2)
▲안은주(상경대 야간경영2)

〈이상 5월1일자〉

보리수

주 인 의 식

오월을 큰 감동으로 맞이함은 여러뜻이 있겠으나 최소한 이 달은 개교기념일이 들어있는 달이기 때문이다. 그 뿐이랴.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의 함성이 함성이상으로 귓전을 맴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느 때와는 달리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하여 교정에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장엄등이 장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변에까지 열병식을 하듯이 정연하게 걸려 있는 燈을 보고 있노라면 선조들의 연등회를 보는 것 같아 환희심이 절로 나고 동국학원의 중흥이 한층 가시화됨을 실감하게 된다.

미화요원들의 빠른 손놀림으로 교정 구석구석은 전과는 현저하리만큼 정돈되고 깨끗해졌음을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되었다. 그런데 이런 교정에 비양심적이다 못해 몰양심적인 사람들의 행동이 이따금 눈에 띄게 된다.

금연구역이라는 곳에서 버젓이 담배갑채 내놓고 줄담배를 피우고 뒷처리를 못하고 일어나는 이가 있는가 하면, 휴지를 쓰는 문화인이면서도 문화인이기를 스스로 거부하는 행동을 자행하는 이들도 골잘 눈에 들어 온다.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는 아마 개교이래 처음으로 장엄해 놓은 교정의 등은 물론이요 도로변의 등까지 떼어내고 전구까지 빼어버리는 인간의 심성을 지켜보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번뇌가 끝이 없는 중생계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 불교의 가지가지 행사 가운데 대부분 등을 달기 마련이다. 이 등(dipa)은 부처님의 지혜가 밝은 것을 표시하는 상징이다. 다른 집단의 구성원은 몰라도 동국가족들은 등 다는 뜻을 분명히 알았어야 되고 알았으면 달린 등 앞에서 각자의 무명을 밝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되리라고 본다.

無明은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정신적인 무지를 말한다. 明(vidyā)은 밝은 태양을 상징한다. 아마 앞에 열거한 인간의 작은 소행은 개인이나 집단의 이기심으로, 아니면 인간이 갖는 순간적인 만용으로 빚어진 일이라고 본다.

우리가 버려진 휴지조각을 무심으로 거둔히 줍는 캠퍼스생활을 하는것은 주인의식의 발로이며, 이 학교에는 주인이 없다는 푸념섞인 말을 하는 구성원들간의 염려의 소리도 한갓 기우에 지나지 않게 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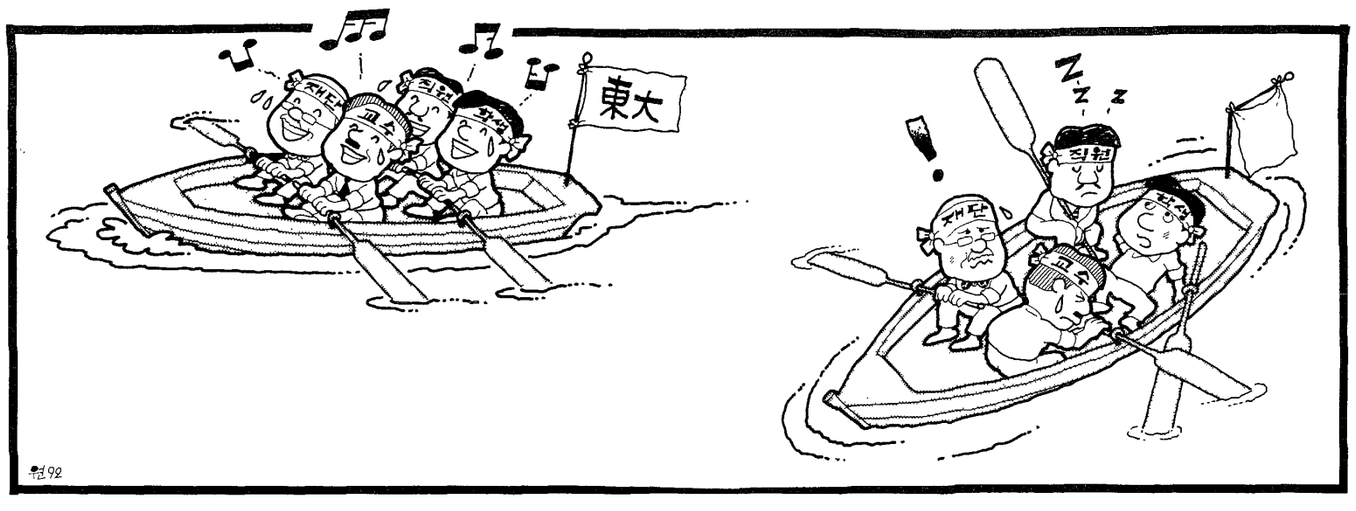
개교 86주년! 장구한 동국대학교의 범륜이 지나 가는 곳마다 연화가 피고 알찬 열매가 맺어 지혜가 발현되리라 확신한다. 모두 주인의식을 가진 그 삼보의 언덕에 오늘도 밝은 태양은 높이 떴다.

崔 玄 覺

개교 86주년 기념 기획광고

지금 우리는

어느 배를 타고 있나



'창공에 빛난 별 물 위에 어리고…'
티없는 목청으로 우리의 미래를 노래하던 시절
탐하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일랑
한 점도 깃들지 않아 오로지 푸른 꿈만 먹으며
정직한 이웃들과 지낸 그때의 마음을
우리는 결코 잃어버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느날부터인가
땅따먹기를 배우고 술래잡기를 하면서
차츰 시기하고 밀치고 탓하는 어두운 마음이 돋아나고
나혼자만의 욕심으로 우리의 머리와 가슴은 굳어졌습니다
문득 우리가 한배를 타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꿈을 저버린 우리들은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나만이 가야할 길이 따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나의 어두운 눈앞에 다가오는 하찮은 무인도만을 고집하며
분별없이 비지땀을 흘리며 그 헛된 노젓기를 하였습니다
너는 어디로 가느냐
나는 또한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질없는 무인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믿는 화합의 아름다운 나라로
정녕 우리는 함께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이 물을 만나 어우러지듯
산이 산과 포개어지듯
우리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노를 저어야 한다는
너무도 당연한 진리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의심하던 구름도 걷히고
서로를 시기하던 파도도 사라지고
아, 함께 배를 저어가는 일이
이렇게 즐겁고 보람찬 일인줄 왜 미처 몰랐을까
누군가 부르기 시작한 희망의 노래는 어느새 합창이 되었습니다.
'…내 배는 살같이 바다를 지난다'

동 대 신 문 사

생활에 근거한 사업 전환 필요

◇학생회는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학생들의 보수화경향에서가 아닌 학생회 간부들의 태도가 낡았던 것이 '변화해야 하는' 대상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진은 91년 5월투쟁 모습〉

긴급진단: 학생회 위기인가

요즘 도서관 주변의 학우들, 혹은 예비역 형들에게서 왠지 학생회 활동이 예전 같지가 않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된다.

집회를 보더라도 학생회 일꾼들의 모습 속에서도 예전과 같은 역동성이나 생동감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또한 학생회 활동을 하는 일꾼들 사이에서도 '대중의 정서가 변하고 있다' '모든게 변하고 있다' '이제 변해야 한다'는 발상에서부터 방식에 있어서까지 변화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심지어는 학생회-학생운동의 위기라는 이야기까지 접하게 되기도 한다.

과연 학생회는 예전 같지 않은가? 예전 같지 않다면 어떤 변화가 일고 있고 그 변화의 양상은 어떤 것인가? 더 나은 방향으로의 것인가 아니면 그야말로 위기인가?

Ⅰ. 변화는 어디에서 오는가

(1) 91년 5·6월을 돌아보며

작년 4월말 경대의 죽음으로 시작하여 6월까지 계속되었던 이른바 타살 정국을 살펴봄으로써 변화의 징조, 혹은 위기의 실마리를 찾아보기로 한다.

현정권의 공안통치가 빚은 13인의 열사들이 조국의 대지를 물들이고 청년의 가슴을 비롯한 각계 각층의 심금을 울리면서 그렇게 91년 5월은 시작되었다.

3당합당이후 현 정권에 대한 총체적 불신과 거부의 몸짓이 87년 6월항쟁 이후 최대의 전국민적 거리항쟁을 이루어 냈던 것이다.

그러나 무리한 가두의 집결로 인한 대열의 급격한 이탈이 기말고사와 여론의 급선회를 기점으로 일어났다. 그후 믿었던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선거에서의 민자당의 잇단 압승은 일종의 절망감과 허무함, 패배감을 우리에게 안겨 주었다. 고민은 시작되었다.

(2) 동구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소련 사회주의의 붕괴를 바라보며

90년대는 첫해부터 참으로 역사적인 사건들이 세계적으로 진행되었다.

그중 동구 사회주의권의 몰락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긴장과 경쟁을 진보와 보수의 싸움으로 바라보았던 많은 진보적 지식인에게는 커다란 의문과 지적·사상적 방황의 계기로 떠올랐다. 게다가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로 맑스주의의 진보성을 확인시켰던 소련의 붕괴는 또 하나의 혁명적 사건으로 역사와 현대인의 뇌리에 새겨졌다.

진보를 대변하던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붕괴에 대한 서구 자본진영의 일방적 해설로 상징되는 세계적 보수화의 흐름은 한국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14대 총선에서의 민주당 김대중의 재야와의 연합공천 거부의 이유는 엉뚱하게도 '국민의 정서가 전반적으로 보수화되었기 때문에'였다.

국민정서의 보수화, 대중정서가 보수로 회귀하고 있다(?). 학우들의 정서가 예년과 다르다(?). 요구가 다양화되고 있고 예전과는 달리 이것 저것, 요리 조리 조심스러워졌고 차분해 졌다. 변화했다. 뭔가 변화하고 있다.

(3) 다시 시점을 87년 6월로-역사는 발전한다는 평범하고 소중한 진리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이 87년 6월 뜨거웠던 민주의 함성을 기억할 것이다. 한국 현대사의 큰 획을 긋는 일대 사건이었던 87년 6월 항쟁은 한국사회변혁운동에 있어서도 대전환의 시기를 가져왔다-미군정에 이은 이승만 독재와 4·19혁명, 5·16쿠데타로 등장한 박정희 유신독재, 80년 민주화의 붕괴, 12·12쿠데타, 광주민중항쟁에 이은-전두환 5공독재의 호헌조치에 직선제 쟁취와 독재타도·민주실현이라는 요구로 전국민적 항쟁을 벌여냈던 87년 6월은 전두환을 국민들의 손으로 백담사로 쫓아냈고 기만적이기는 하지만 당시 독재세력은 국민의 민주화 요구에 항복을 표시했었다. 그것이 6·29선언이었다. 물론 양김의 분열과 미국과 독재세력의 사상 유례없는 부정선거로 5공의 쌍생아 6공을 또다시 허용하게 되었지만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사회변혁운동이 본 궤도로 접어드는 시기, 즉 운동이 소수에서 다수의 대중운동으로 본격화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것은 틀림없다. 87년 6월항쟁은 같은 해 7,8,9월 노동자 총파업투쟁을 거쳐 민주노조의 등장과 아울러 거대한 민중의 힘이 역사의 전면으로 나서는 환희도 맛보았다. 역사는 발전하며 역사발전의 주역은 바로 민중이라는 평범하고 소중한 진리를 4천만 국민들은 몸으로써 깨우쳐 나갔던 것이다.

87년 민주화 운동의 성과는 이후 전국 민족민주운동 연합이라는 전국적인 민족민주운동 조직의 결성을 시작으로 전노협,전대협, 전교조, 전농등 각계 각층의 자주적 대중조직이라는 조직적 성과로 남았고 이후부터 지금까지 더욱 더 자신의 처지와 생활속에서부터 운동의 대중화와 조직적 발전으로 이어져 마침내 지금은 건국이래 최대라는 전국 연합의 결성으로까지 왔다.

87년 6월항쟁과 7,8,9노동자 총파업 투쟁은 생활과 운동의 조화로운 일치 또는 개인적 삶과 민족의 삶의 통일이라는 면에서 역사발전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수 있고, 자신의 처지와 일상생활로부터 운동을 대중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궁극적인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해주었다고 하겠다. 다시 말하면 '대중에게서 지혜와 힘을! 대중과 함께 힘찬 실천과 궁극적인 승리를! 한사람의 열걸음보다는 열사람의 한걸음을!' 이러는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던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실천하느냐였고 어떻게 대중과 함께 하느냐였다.

Ⅱ. 문제는 사람의 변화이다

어쩌면 현재 동악의 전반적인 무기력증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등투로부터 4월을 지나오기까지 전개한 학생회·운동 사업은 학우들의 이해와 주체적 참여에 기인한 것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가 민중과 함께 얻어낸 평범하지만 소중한 진리를 머리와 말로는 사고하고 애기해 왔지만 진정 학우들을 신뢰하고 함께 새로와지려 하려는 데 치열했었던가 의문을 던지고 싶다. 이미 우리는 87년 이후 90년에 들어서면서부터 운동의 대중화-인생이 있는 운동, 각자의 삶의 지향에 기반한 자주적인 운동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진실로 학우들과 삶의 호흡을 같이 하는 이들보다는 예전의 낡은 방식, 예를 들면 아직도 학우들을 선전선동의 대상으로만 대상화시키는 이들이 더 학우들의 눈에 빈번히 띄인게 아니었을까?

소련이 왜 몰락했던가? 그것은 관료주의가 아니었던가, 인민을 위한 권력과 제도는 마련되었지만 진실로 인민을 믿고 그들이 지향하는 바를 몸과 마음으로 느낄 수 없었던 사람-관료때문이 아니었던가. 혹시 지금 동악의 학생회의 일꾼들은 학우들에게 자신의 주의주장만을 일삼는 또 다른 특권층으로 비춰지고 있는것은 아닐까? 진정한 의미의 진보와 사회발전의 의미는 무엇인가? 제도와 권력형태의 변화나 GNP의 상승인가? 아닐 것이다.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가 1차적이고 따뜻한 정이 흐르는 관계로 바뀌어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진보이며 사회발전이 아닐까 싶다.

우리의 운동은 이미 87년이래로 올바른 방향성을 갖고 새로와지고 있다. 우리가 벌여냈던 자주적 학생회 운동과 각기다양한 소모임, 전공학회 건설의 노력, 학년학생회와 분임토의등이 그러한 좋은 선례이다. 문제는 낡은 것이 이미 무너지고 있는데 새로운 것이 아직 사람의 변화로 구체화되고 실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학우들은 이미 낡은 것을 거부하고 있다. 변화의 본질은 이것이다. 나날이 새로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것은 위기가 아니다. 우리는 이미 새롭고 낡은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다. 대중을 믿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이미 낡은 것이다. 흔히 말하는 학생회가 예전같지 않다는 것은, 낡은 것은 확실한데 그것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것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화의 지점은 결코 소련의 붕괴나 학우등의 정서가 보수화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그로인한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찾기위한 자주적 발전의 진통인 것이고 변화의 지점은 바로 교조나 당위가 아닌 발딛고 있는 현실의 객관적인 분석과 한걸음 더 나가려는 사람의 변화의 문제인 것이다. 동악의 일꾼들은 나의 변화가 주위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며 마침내 세계를 새롭게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러한 자주적 발전의 진통을 줏대있게 극복하고 새롭게 학우들과 함께 하려는 자세를 지녀야 할 것이다.

Ⅲ. 어떻게 새로와질 것인가

실로 변화하지 못하는 학생회 일꾼의 모습이야말로 현 동악의 무기력증의 요인이다. 학우와 함께 살며 호흡하고 삶이 살아 숨쉬는 운동을 기적해 나가는 일꾼의 부재이것이 자주적 발전선상의 진통이고 위기의 본질이다. 허준의 스승 유의태처럼 자신의 몸을 해부하는 치열하고 줏대있는 일꾼이 없는 한 진통은 계속 될 것이다. 어쩌면 진정 돌이킬 수 없는 위기상황이 현실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변화해야하지만 전혀 새로운 것은 없고 전혀 접별 일도 아니다. 민중이 역사를 발전시켜 왔듯이 이젠 우리들의 자각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될 뿐이다.

해답은 학우들의 삶속에 있다. 역사발전의 해답이 민중의 삶속에 있듯이.

남 경 부
〈문과대 국민윤리학과〉

학우를 대상화했던 간부태도가 문제
87년 역사적 성과-교훈 지금도 유효

동악로

"졸업준비위원회요? 거기 졸업앨범만드는곳 아니예요?"

이말은 물론 일부일수도 있으나 현재 동악내 졸준위에 대한 일반 학생들의 인식정도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다.

올해로 4대째를 맞는 본교의 졸준위는 88년 이후 민주적인 학내 제주체들의 열의를 기반으로 4학년 재학생들의 취업 일반을 돕는 성격으로 학생회내 자리잡게 되었다.

당초 1만 동악인의 올바른 사회진출과 예비 노동자로서의 건강한 삶의 태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의형적 명분으로 앨범제작, 취업특강, 강연회, 각종 시사교양정보제공등을 사업내용으로 잡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 제4대 졸준위는 취업준비·앨범제작·여론조사등 3개분과와 정·부위원장을 포함 모두 5명의 인원으로 꾸려지는 열악한 상황이다.

더구나 자신들의 취업준비에도 바쁜 4학년 과대표들과의 상시적 연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때문에 졸준위에 대한 위상이 앨범만드는-곳 이상의 의미를 학우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사범대 학생은 "졸준위의 위상강화를 위해선 기존의 미약한 취업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학우들의 관심과 이해를 모을 수 있는 부분의 토대를 강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졸준위가 현재 안고있는 사업주체의 부족에 대한 고민 역시 각 단대별 상임위원들을 선출하고 실질적으로 졸업앨범의 편집에 들어가는 11, 12월에 다음해 사업을 맡을 주체들을 교육하면서 이월하는 작업들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이전에 애국적 사회진출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요구가 동악내내 일반적정서로 뿌리내려야 한다는 점이 중요할 것이다.

〈조용수 기자〉

졸준위 위상

준비 학생들을 대상으로한 인성·적성검사의 접수를 받던 한문석(수학4)졸준위원장은 "검사에 참여를 유도하기위해 각과 4학년 과대표들에게 공문과 안내방송을 몇차례 했지만 현재 접수한 대부분의 학생이 교내에 붙여진 광고를 보고 찾아온 학생들이 많아

애국군인상 제정 추진

군대민주화 위한 지속적 노력 계기

상관의 명령이나 지시에 무조건 절대복종을 강요하는 장군과 군의 잘못된 현실을 고발하는 양심적인 청년장교와 사병, 44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군대에서 필요한 존재는 누구인가?

5월은 핏빛하늘을 연상하거나 최루탄가스가 뿌연 명동거리를 회고하기에 충분한 투쟁의 달이다. 9일 '민자당 해체의 날'과 19일 '민주정부와 민자당 재집권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회'를 비롯한 사회각계각층의 투쟁이 준비되고 있다.

특히 올 5월은 12월 대선을 앞둔 주요한 시기이며 지난 총선에서 폭로된 '군부재자투표 부정선거'가 주요 관심사로 부각된다. 왜냐하면 군부재자투표부정은 12월 대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또다시 군내 의문사가 고개를 들고 있으며 남현진열사등 군내의 문사는 아직도 시원하게 밝혀지지도 못한채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군대민주화'는 이지문중위나 이원섭일병의 양심선언으로는 벅차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단지 '사실보고'였던 그 양심선언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데 있는데 군대민주화와 현실은 너무도 괴리되어 있다.

이에 '애국군인상 제정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문정현·조화순·지선)'는 ▲군을 불명예로 이끌었던 정치군인들의 항상적인 정치개입을 반대하고 민·군관계의 올바른 정립을 위해 ▲하나뿐인 조국의 민족통일에 이바지하는 자주적 군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사회민주화의 선결과제인 군경민주화와 애국적 군인·전경들의 인권향상을 위한다는 취지로 '애국군인상'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군대민주화는 이제껏 군대의문사나 군인의 양심선언 등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회적 여론이 잠시 환기됐을뿐이지만 이번 '애국군인상' 제정추진으로 군대민주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부〉

교 수 초 빙

1. 초빙분야
서울캠퍼스

학 과	전 공 분 야
영어영문	영어회화(외국인)
일어일문	일본어회화 및 일본문화사(외국인)
철	서양 현대철학(영미철학 및 분석철학)
물 리	반도체 물리학, 고체물리학 실험
통 계	수리통계학(확률 및 응용확률론)
경찰행정	형사사법정책 및 실무
무 역	무역실무(해운 및 해상보험)
전 자 공	디지탈영상처리, 컴퓨터통신
전 기 공	신호처리 및 Image Processing
기 계 공	기계공학
토 목 공	도로 및 기초공학
식 품 공	식품공학
교 육	교육사회(교육인류학, 비교교육학포함)

경주캠퍼스

학 과	전 공 분 야
불 교	한국불교사
국 사	한국고대사
철	성리학
불교아동	불교아동학(불교와 인성심리 가능한 자)
산업안전공	전기안전공학
행 정	계량분석 및 PMIS
회 계	회계정보시스템
정보관리	정보관리학
기초과정	물리학
한 의	방제학 및 실습, 한방신경정신과, 한방부인소아과
의	해부병리학, 생리학, 내과, 일반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진단방사선과, 재활의학과

2. 초 빙 인 원: 각 전공별 약간명

3. 자 격
(가)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으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로서 1992년 9월1일 기준으로 만 45세 이하인자(의학계열 및 특채는 예외)
(나)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단, 의과대학은 예외)

4. 제 출 서 류
(가) 이력서(명함판사진 첨부) ·····1통
(나) 학위 및 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각1통
(다) 경력 및 재직증명서(이력서상의 경력증빙서류) ·····각1통
(라) 연구실적 목록·····1부
(마) 연구실적물(최근 4년이내 발표된 논문및 저서와 학위논문) ·····각4부(원본 1부, 별쇄본 3부)
(바) 임용후 수행할 연구계획서(4,000자 내외의 분량) 1부
(사) 전문의 자격증사본(의과계 지원자에 한함) ·····1통
(아) 불교신자일 경우는 계첩사본 또는 수계증명서 …1통

5. 제출기한 및 제출처
(가) 1992년 5월27일까지
(나) 제출처: 우편번호 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동국대학교 교무과

6. 기 타
(가) 외국지명대학 출신자로서 현지한 학문적 업적이 있는자는 특채할수 있음.
(나) 이력서 상단에 지망대학, 전공분야 및 전화연락처를 명기할 것.
(다) 외국어로된 각종 증명서는 본인이 확인난인한 번역문을 첨부할것.
(라) 서류심사후 초빙예정자에게는 개별통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마) 제출서류 미비시에는 접수치 않으며, 우편접수는 제출기한일 도착분에 한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무과(전화260-3033)로 문의바람.

동국대학교

93 학군사관 후보생 모집

1. 모집인원: ○○○○명

2. 지원자격: 본교 2학년(71. 1.1-75. 3.1 출생자)재학생

3.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기 간: 92. 4.20-5.20(학군단 본부)
-구비서류
·지원서 및 서약서: 각1부
·1학년 성적 증명서: 1부
·고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사진(4×5): 4매
·호적 및 주민등록 등본: 각1부

4. 선 발: 대학성적, 신체검사, 체력검사, 면접, 신원조회

5. 합격자 발표: 92. 12.23

6. 특 전
-무시험 선발
-소위임관, 중위전역, 또는 복무연장, 장기복무
-의무복무기간: 2년 4개월(장교중 최단기)
-전공학과 및 개인희망고려 병과분류 보직활용
-전역시 직업보도 실시
-대기업 학군출신장교 우대선발 및 처우
-장교 임관후 해외유학 기회 부여
-국내외 석사, 박사학위 취득 기회 부여
-석사, 박사학위 취득시 정책부서근무
-관련기관 교수/교관근무

※문 의 처: 학군단 본부(교내 3537·8)

제112학군단

학생생활연구소 이용안내

본 연구소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기적으로 심리검사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 래

1. 상담
1) 상담종류: 학업상담, 진학및 유학 상담, 취업 및 진로상담, 심리문제 상담
2) 상담시간: 매주 금요일 지정시간
3) 상 담 자: 전공 교수, 연구원

2. 검사
1) 검사종류: 적성검사, 흥미검사, 인성검사, 지능검사 등
2) 검사기간: 매주 화, 수요일 지정시간
3) 검 사 자: 연구원, 조교

3. 접수
1) 접수기간: 평일(토요일 제외)오전 10시~오후5시
2) 접 수 자: 담당접수원

4. 기타
●구체적인 검사 및 상담일정은 담당자와 상의하여 결정하기 바람
●검사 및 상담비는 본교 재학생에 한하여 무료임
●단체 심리검사와 상담신청도 가능함
●관련 비치자료(해외유학안내, Fulbright 유학자료 등)를 대출받을 수 있음.

※기타 문의사항은 본연구소(교수회관 3층 3-1호, 구내전화 3506)로 문의바람.

학생생활연구소

기획시리즈 세번째 재단을 둘러싼 인맥과 문제점

'장기근속' 관선이사…동국발전은 뒷전

대한불교 조계종은 지금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54년 비구-대처승간의 1차 정화이후 계속된 조계종의 내분은 민족불교의 교세를 약화시켰다. 또다시 '2차정화'라는 구호와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 90년 종정선출을 둘러싸고 시작된 조계종 분규와 현재의 분종위기는 예상외로 장기화될 것이라는게 일반적 분석이다.

이러한 끝없는 조계종의 분규는 본교 침체의 외적 요인이라는데 그 심각성을 더한다. 시리즈 앞편에서 제시했듯이 본교재단의 실체는 조계종단임이 분명한 사실인데, 이처럼 문중파벌과 이권다툼의 근40년이 넘은 내분속에서 본교발전의 재정적 지원을 재단·종단에 기대했던 것은 '김치국부터 마신'성급하고 환상적인 발상은 아니었는가 하는 자문을 하게된다.

또 조계종의 문중파벌이나 자리싸움의 양태는 본교 재단내에도 존재하고 있으며 더욱이 88년 학자투때 나온 교수·직원의 인맥(정확히 표현하면 이합집산)자료가 결코 소문의 추정만은 아닌 객관성을 띤다는 것에서 우리대학이 안고있는 인적 구조의 모순은 심각한 실정이다.

조계종 분규, 그리고 문중파벌

원래 불교에서 문중파벌이 있기전의 '문중의식'은 한국불교의 독특한 특성중의 하나였다. 문중은 한국불교의 법맥이었다. 한 산문에서 출중한 고승이 배출되고 이어 이 고승을 정점으로 대를 이으면서 독특한 수행가풍으로 형성된 것이 문중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 그 문중의식은 일부 권력을 추구하려는 권승들의 배경으로 하나의 '인사줄'로 작용하고 있다. 그 굴절과정에는 물질우선과 현실적 입지를 중요시하는 세속적 오염이 파벌을 형성한 것도 있지만 일제시대부터 외세가 민족불교를 탄압하기 위해 만든 구조적 모순에 있기도 하다. 즉 일부 특권층이 불교전반을 장악하고 있는 구조적 모순이 그것이고 근 40년동안 조계종이 분규의 온상지가 된 데는 외세와 일부 권승이 결탁해 구조화시킨 모순이 크게 작용했다.

91년 1월 지금의 두총무원시대의 '서막'을 알린 7대 종정추대방식을 놓고 원로회의와 중앙종회의 반목과 대립은 표면화된다. 종헌위법성 시비, 개정논의가 계속되면서 91년 10월 '제2의 정화'를 기치로 강남총무원은 현판식을 갖는다. 그러나 이것은 불교현대사에서 주목받을만한 사건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62년 통합종단출범이후 이같은 분규는 거의 정기적으로 발생했던 것이다.

최근 조계종사태를 두고 불교계 신문사 한 기자는 문중파벌과 조계종분규에 대해 "지금에 있어 불교계의 맥이란게 있겠는가. 단지 주지자리등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이합집산일 뿐이지"라고 개탄했다.

사실 1차 정화이후 오늘의 조계종 분종위기까지의 분규는 실질적인 정화차원은 아니었다. 단지 '정화'를 빌미로 종권, 주지권을 둘러싼 문중간 힘겨루기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대학발전보다 자기입지·권력욕을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본교 인맥의 심각성은 동국중흥의 가장 중요한 걸림돌로 존재한다. 민족동국·종립대학의 특수성을 가장 강조해야 할 재단이사가 이를 방조하고 있는 것이다.

재단이사 혁신없는 동국발전 요원
이사-교수까지 이어지는 인맥구조 심각

재단이사회의 인맥과 종단과의 관계

정관 제23조(인원의 선임방법) 2항은 '이사회의 구성은 조계종 제적승려 9인, 이교도가 아닌 교육계 및 덕망높은 인사4인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임기를 4년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 9인의 이사 편성은 어느 한 문중에 편중되는 것이 아니라 균일하게 배치돼 있다. 재단이사회 회의에 대한 취재의 어려움이 많긴 하지만 동국학원의 전반적 문제를 논의·의결하는 재단이사회내에서 스님들의 문중의식이 작용하지 않는다는게 주위의 얘기이긴 하지만 일부에서는 전혀 배제시킬 수도 없지 않는가하고 반문한다. 실제 지난해 재단이사장 선임당시 이러한 문중파벌이 이사회의내에 표출됐다는 분석도 있고 그래서 은밀하게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무성하다.

그러면 이사회와 종단의 관계는 어떤가.

89년 부정입학사건이후 종회는 이사후보 9인과 감사2인을 추천, 선임할 것을 이사회에 요구했고 지난해 이사선출때도 조계종종립학교관리위원회는 종회추천이사 선임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재단이사회는 이러한 종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전원 유임'결정을 내린다. 당시 이사회이 입장은 "현 조계종 사태를 바라봤을 때 학원안정의 측면에서 경륜과 덕망있는 인사가 기용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종회와 이사회의 대립은 현 재단이사가 종회의원, 총무원장 등을 지낸 원로급 스님들로 구성돼 있어 사실상 종회·총무원 집행부와 본교 스님이사간의 위상설정이 미묘하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오녹원이사장은 서의현 총무원장 전에 총무원장을 역임했으며 서정대스님은 종회의장을 지낸바 있다.

대한불교 조계종내 유일한 종합대학교인 동국대학교 재단이사회와 종단은 불가분의 관계로 맺어져있는 것이면서 한편으로 재단이사회의 고유영역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재단이사회의 문제는 많다.

관선이사, 그이후에서 재단 혁신까지

민족동국의 근20년간의 정체원인중 재단의 투자의욕 부재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오녹원스님은 지난해 재단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이 현실을 인정하며 "재단이 투자를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했다"라고 밝혔다. 즉 현 종단의 자산형태, 정부와의 관계, 조계종 사태를 투자를 못한 이유로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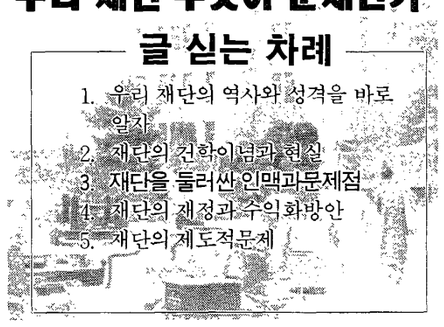
그러나 재단의 투자의욕 부재와 동국침체 원인은 그 내부에 있었다.

71년 혜화관 소유권을 두고 조계종단과 불교계가 대립하면서 13명의 관선이사가 들어온다. 이때 정관을 개정, 이사구성비율을 종단스님 9인에서 5인으로 축소시킨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들어온 관선이사 중 본교의 중차대 한 사안을 의결하는 한표를 행사하면서도 이사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하는 무능이사가 '장기근속'한다는 사실이며 그 중 일부는 재단이사라는 막중한 책무를 도외시한 채 자기 권력욕의 성취에만 악용하려 한다는 점이다. 즉 관선·무능이사는 있지만 동국중흥을 앞장설 이사는 없는, 71년 관선이사 영입이후 '주인없는 대학'이란 세간의 빈정거림이 지금도 유효한 것이고 이는 곧 20년간 재단이 학교발전에 보여준 태도에서 증명된다. 더 심각한 것은 88년에 공공연히 나돈 인맥자료에 의하면 무능·관선이사들이 20·30년 이사자리를 차지하면서 본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연계한 교수들의 문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이다. 무능·어용교수퇴진이 타대학에 비해 찾고 심각한 것에는 그 역사적 배경이 있었던 것이다.

동국침체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을 인적 구조에서 찾는다면 개교당시 불교계인사로 구성됐던 이사회가 71년 관선이사회의 등장으로 뿌려놓은 골깊은 인맥이 오늘에 이르러서도 학교발전보다 자기입지, 권력욕을 끊임없이 확대재생산한 결과인 것이다.

〈이병민 기자〉

우리 재단 무엇이 문제인가 — 글 싣는 차례



1. 우리 재단의 역사와 성격을 바로 알자
2. 재단의 건학이념과 현실
3. 재단을 둘러싼 인맥과문제점
4. 재단의 재정과 수익화방안
5. 재단의 제도적문제

교과과정 개편방향

현 교과과정에 대한 문제점

〈전공과정〉

학우들이 가지는 자신의 전공 학문에 관한 문제 인식은 해당 전공학과의 학우들, 특히 고학년일수록 자세하고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각 학과의 특수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공히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커다랗게 제기되는 것들은 첫째로 전공학과의 커리큘럼이 미래지향적이지 못하고 기존의 학문들을 답습하는 진부한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어제, 오늘 제기되는 문제가 아닐 것이다. 둘째로 각 전공학과별로 전공학문을 수학하기에는 강좌수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이것은 과의 연륜이 깊은 학과보다는 신생 학과와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특히 민감한 학과(예; 공과대학)에서 나타나고 있다.

〈교양과정〉

학부과정에서의 교양과정이란 전공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학문을 대학인, 지성인으로서 갖추어야 될 기본적 학문을 수학하는 것이 교양과정의 기본 입장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교양과정은 수박겉핥기식으로의 강의가 되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양은 전공 학문에 비해 비중도가 떨어진다고 하나 제대로 교양과정을 수학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에 몇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면 첫째, 개설 강좌가 다양하지 못하여 학우들의 선택의 폭이 좁다는 것이다. 이것은 학우들이 자신들의 요구에 맞는 교양강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학점때우기 식으로 강요된 교양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을 나타낸다. 둘째, 개설 강좌의 강의가 대체로 형식적 기른 형태로 이루어짐으로써 개설 강좌의 충분한 이해보다는 강의 제목을 이해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질 못한다. 이것은 강의자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지만 강좌 제목과 강의 목적이 대부분 포괄적이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구체적이며 내용성을 갖추기가 힘들게 되어 있는 형태다.

위와 같은 문제들은 여러가지 근본적인 문제에서 제기되어 온다. 즉 선행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들이 있다.

첫째, 그것은 교수의 절대적 부족과 학문적 토대가 마련되지 못함으로 나타난다. 현재 각 학과의 교수 확보율은 법정 정원에서 60%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수가 자신의 전공 학문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강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 대부분이 여러 학문을 학과에서 나누어 강의하는 식이거나, 고민없이 즉자적으로 강사로 대치하는 것이 문제이다. 이것은 강사의 질에 대한 문제로 나타나지만 대부분이 학문의 연관성을 갖지 못하고 한 학기 강의로 끝나 버리기 쉽다. 또 이 지면을 통하여 자세히 제기할 수 없으나 교수의 강의에 대한 연구의 부족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단적으로 학우들의 공통된 목소리 "10년전 강의나 지금 강의나 차이가 없다"라는 불평속에서 나타난다. 비록 과장된 표현일지라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둘째로는 교과과정에 대한 전문적 연구기관의 부재를 들 수 있다. 먼저 전공 학문에 대해서는 해당 학과의 교수들이 자체적으로 분석, 연구하여 대안을 제시한다고는 하나 대부분이 자신의 전공 연구에 대한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므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힘든 현실이다. 또한 교양과정은 학교 당국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현행 교과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행정 편의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로 교육재정의 절대적 부족이다. 재단 전입금과 국가 보조금이 매우 부족한 현실에서 교육 환경의 열악함으로 학문 연구의 비약적 발전에 걸림돌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연구기관 구성시급
전공교과 미래지향해야

교과개편에 대한 장·단기적 대안

먼저 장기적으로는 교과과정의 진보적 발전을 위한 전문 연구기구의 건설이다. 이는 전공이나 교양이나 공히 필요한 것이다. 물론 전공에 있어서는 해당 학과의 주체들이 자주적으로 연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고 안정적 연구 재정 확보가 보장되는 행정 기구여야 한다. 또한 교양에 있어서는 기존의 교양과정에 대한 철저한 분석, 학생들의 수학 정도,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 지향점등을 발전적으로 연구하고 집행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이것은 현재 행정 편의로 집행됨으로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교양과정의 문제점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 개편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즉자적이기는 하지만 학생회체계와 학교 행정당국의 원활한 교류가 필요하다. 현재 전공과정 개편에 대해서는 학교당국이나 해당학과에서는 공통된 논의나 연구·분석 없이 기존의 학문을 재반복하는 식의 일방적인 교과개편을 지양하고 전공개편에 대한 토론, 세미나등을 통한 교수·학생간의 의견 수렴등 기존의 강좌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 연구하는 방법을 지향해야 한다. 또한 교양과정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교과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설문조사와 타학교와의 비교 분석을 통한 연구·조사 결과를 학교 당국과 실질적 논의를 통한 개편방법이 제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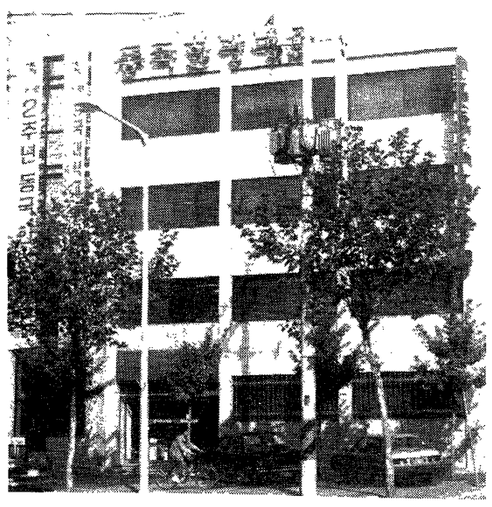
한 상 철

〈야간강좌 무역학과〉

동국한방 병원은 밝고 건강한 사회를 추구합니다

특설크리닉
■중풍센타
■침구치료실
■수침크리닉
■척추관절센타

동국한방병원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은 조그만 것을 잃고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은 많은 것을 잃으며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은 전부를 잃게 됩니다.
건강은 건강할때 지킵시다.

※ 할 인 혜 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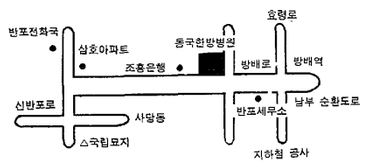
	대 상 자
30%	본교 교직원
20%	교직원 가족, 재학생·스님
10%	졸업생, 불교신자, 직원소개

진 료 과 목

과 별	담당교수	전 문 진 료 분 야
제 1 내 과	이 종 형	간·폐계 질환:간 담 폐 기관지 비계질환:위 소장 대장 췌장 중풍 뇌혈관장애 신경마비 당뇨병
제 2 내 과	김 문 곤	심·신계질환:심장혈관 고혈압 저혈압 신장 전립선 방광 요도
침 구 과	김 갑 성	통증질환:신경통(머리 어깨 무릎 허리 팔 다리)비만증 체질치료
물리요법과	이 명 종	척추 골반질환 디스크 신경통 각종마비
부 인 과	김 문 곤	부인병(월경이상 대하증 불임증 산후풍)
소 아 과	이 종 형	소아질환(성장및 발육부진 호흡기 대사)허약아

진 료 안 내

□접수시간 평 일 ▶09:00~12:00 13:30~17:00
토요일 ▶09:00~12:30
□진료시간 평 일 ▶09:00-12:30 13:30~17:30
토요일 ▶09:00~13:00
□면회시간 ▶12:00~14:00, 18:00~2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1동 837-13
전화:(代) 536-5599, 4660(입원실)

동국한방병원

부처님 오신날 특집 현 한국불교의 모습과 부처님의 출가정신

현실고와 함께하는 '부처'가 필요한 때

지 선
〈전국연합 공동의장·민족자주통일 불교운동협의회 의장〉

정교분리, 누구를 위함인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세상이 아무리 썩어도 종교만은 때묻지 않고 세상의 빛으로 남아 있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러한 바램은 한낱 꿈으로 끝나고 말았던 경험이 우리들에게는 있다. 우리들의 바램에도 불구하고 성직자입네 하는 사람들은 종교로서의 청정함을 저버린 채 가장 부도덕한 정치세력과 야합하는 모습으로 우리들의 희망을 묵살해 왔다. 부정한 사회에서는 종교도 예외가 아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만물도 사람사는, 구체적인 생활과 떨어진 그 어떤 고고한 '순수'이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이것은 일찍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상의상관법으로서의 연기사상으로 확연히 입증된 사실이다. 객관세계와 관련맺지 않은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있을지도 모르고 없을지도 모르지만 남의 주머니에 있는 어떤 물건처럼 그 존재를 확인할 수가 없는 '신'이라는 허상을 믿는 것과 다름이 없다.

정치와 경제문제 등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는 시민들에게, 사회문제에 개입하는 종교인에게 주로 들씌우는 게 정치는 정치인이, 경제는 경제인이 잘 알아서 해야 하는 것이고 시민은 다만 자기할 일을 묵묵히 하는 것이 사회를 바르게 만들 수 있다는 논리이다. 특히 종교는 사회적 소임이 다른 것이라 규정하고 사람들의 의식을 바르게 선도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라는 요구를 덧붙인다.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성실히 일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세월이 잘못된 정치·경제구조로 운영되었는가? '순수'와 '성실'의 구호가 자기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위정자의 잘못을 가리는 방패막이 구실을 해 왔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불교에서 지향하는 뭇중생의 성불과 불국정토사회의 건설이라는 문제를 살펴 보자. 성불은 확인할 수 없는 그 어떤 사람이, 또는 원래부터 부처될 종자가 있는 소수의 사람이 이루는 특별한 일이 아니다. 지금은 미혹해 보이는 우리들 하나하나가 모두 무명을 벗어 던지고 부처의 깨달음과 자유자재함을 얻는다는 것이다. 불국정토라고 하는 것도 메시이가 장식하여 우리들에게 어느날 갑자기 선사하는 것도, 죽음을 거듭하여 언젠가는 도달할 저 먼땅에서 누려보는 천당의 세계도 아니다. 이 나라 이 땅에서 일구고 가꾸는 지금 이 순간순간이 아름답고 깨끗해지는 과정이다. 불성은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올바르게 살아나가는 우리들 자신속에서 발견되는 보석같은 성품이고 정토는 오탁악세의 이 사바세계에서 소중하게 발현되는 민주와 자유의 사회구조인 것이다.

정경분리의 원칙을 목청높혀 얘기하는 자가 정치권력과의 결탁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보듯이 정교분리의 원칙을 강조하는 자가 정권의 그늘 아래에서 보호받는 음지식물임을 우리는 누누히 보아 왔다. 참된 분리는 부정 부패한 어두운 세력과의 결연한 이별이다. 참된 결합은 맑고 깨끗한 인간의 이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현대사와 한국불교

한국의 현대사가 국민의 민주와 자유를 보장하면서 발전해왔다고 자부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또한 2000년대의 번영을 꿈꾸는 사람도 적을 것이다. 오히려 한국현대사는 민주압살과 민중탄압의 가시밭길 속에서 민족성원의 자유와 행복을 획득하기 위한 고난의 역사였다고 함이 마땅하다 하겠다. 특히 외세에 의해 민족자존과 복리를 침해·훼손시켜 왔던 민족의 수난사였다.

외세와 이에 결탁한 독재정권에 의해 각계각층 민중들이 핍박받았던 사회현실에서 한국불교 또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 땅에 새롭게 터를 잡은 미제는 미국문화이식을 위한 종교적 정책으로 한국불교를 왜소화·약화시키는 데 주력했다. 이것은 미군정 당시 크리스마스의 국경일 제정과 이에 비견하여 법정투쟁을 통해 1975년에야 겨우 이룩한 부처님오신날의 법정 공휴일 제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어 미제의 불교정책은 독재정권의 손을 빌어 한국불교를 지배세력의 치마폭에서 놀아나게 하기 위한 억압장치로써 일제의 사찰령을 모체로 한 불교재산관리법을 비롯한 불교관련 제악법을 제정하였으며, 내부세력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정책으로써 '불교정화유시'를 비롯한 분열정책을 획책하였다. 그리고 교육·언론매체를 통한 불교왜곡은 미국문화이식을 위한 민족전통의 가치체계 붕괴에 절대적인 힘을 발휘했다. 덧붙여서 대불교정책이 뜻대로 되지 못하고 불교자주세력이 등장하는 움직임을 보일때면 돈과 권력을 가진 자의 보검을 인정사정없이 휘둘러왔다. 대표적으로는 사상초유의 10.27법난이 있다.

소외와 탄압의 불교현대사 과정에서 그러면 불교내 주체가 어떻게 한국불교를 지켜왔는가 자문해 보면 부끄러움과 반성이 앞선다. 불교발전의 소임을 부여받은 종단의 핵심 상층부는 일찌감치 지배세력의 힘 앞에 굴복하여 개인의 영달을 위해 불교종지를 저버렸다. 한국불교의 침체와 타락의 근원은 외세와 독재정권의 불교탄압정책과 이에 결탁한 종단의 핵심 상층부에 의해 자행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물론 지배세력의 불교정책과 이에 영합한 종단 상층부에게 한국불교 침체와 타락의 주된 책임을 물어야 하겠지만 남이 아닌 우리가 바로 불교역사를 이끌어 나간다는 주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사부대중의 대응과 실천이라 하겠다.

외적으로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다수의 스님들은 현실을 정면으로 부딪쳐가며 돌파하려고 하기보다는 비껴가려 했다. 개인적으로는 현실에서 조금 벗어나 보일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탈세속·초현실의 입장에서 불교현실을 외면했던 세력은 지배세력이 종단 상층부의 메불매종행위를 방관·묵인해 준 등조자가 되어 버린 것이다. 재가불자들 또한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잘못된 불교행태들에 불만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불교는 승가가 책임자이고 재가는 승가를 따르는 신도일 뿐이라고 하는 비주체적인 모습으로 마찬가지의 방관과 묵인행위를 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결코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다만 우리들이 역사적 온폐과정과 주체세력과의 단절때문에 모르고 있었을 뿐이다. 불교 내외적 위기상황에서 근본불교의 민중성(경전에 수없이 나오는 인민대중성)과 변혁성을 회복하기 위해, 당면한 민족적·불교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피나는 실천역사를 불교는 가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민중불교운동은 고구려 시대부터 고려, 조선시대로 이어지면서 무수히 많은 실천을 전개해 왔으며, 다만 분명한 사실은 이 나라 불교사가 언제나 호국불교적인 면과 민족 민중과 함께 했던 면이 양존했었다는 점이다. 가까운 현대사만 보더라도 8.15 직후 불교내 식민잔재 청산과 민족불교로서의 본래 지위와 역할을 다하기 위한 대표적인 실천운동으로 조선불교혁신회와 불교혁신총연맹의 활동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사찰령에 의한 주지의 전횡과 부패교단의 혁신을 위해 불교내 각부문이 연대하여 공동 투쟁하였다. 또한 다양한 불교자주·혁신단체들은 비상정치회의, 민주주의 민족전선, 남북전조선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등에 동참하여 남한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고 자주적 통일정부 수립에 매진하였다. 물론 당시의 불교자주·혁신운동은 미군정과 당시 중단 상층부에 의해 좌절되어 한국불교는 이승만정권 이후 30여년간 암흑적 상황을 맞이할 수 밖에 없었다.

미군정시기 불교자주·혁신세력의 범맥을 이어 1980년대에 이르러 한국불교는 다시금 불교문제의 해결과 민족문제의 해결을 위해 조직적으로 일어섰다. 이 시기에는 불교사상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을 통해 구호로서의 민중성과 변혁성이 아니라 본래 불교사상을 구체화·현대화했던 과정이었으며 실천적으로도 불교운동을 대중화하고 사회운동과 결합했던 성과있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의 다양한 실험과 모색을 통해 이제 한국불교의 개인적 구복의 종교가 아닌 집단의 구원처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불교문제의 해결이 곧 민족문제의 해결과 맞닿는 문제라는 인식으로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다.

지금은 한국불교의 계속된 침체와 어용화에 대해 새로운 희망으로 부상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비록 거대한 지배세력의 힘 앞에서 작아 보일지는 모르지만 지금의 한국불교를 이렇게라도 유지·발전시켜 왔던 것은 불교자주·혁신운동 세력이었다. 이제는 한국불교의 유서서히 불교운동이 자리잡고 있다. 다만 불교사상에 보다 깊이 뿌리를 내릴 것과 대중의 이해와 요구에 충실할 것 등을 새로운 과제로 부여받고 있는 불교운동은 현재의 과제에 부응하여 정진한다면 보다 구체적인 한국불교의 희망세력으로 부상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지금 한국불교의 현주소는 어떤가. 부처님의 출가정신은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는가. 해방 이후 외세에 의해 탄압받았던 불교는 이제 민족문제의 해결을 위해 헌신코에 바탕을 둔 실천 불교로

불교는 민족문제 타개하는 실천의 길
외세·독재 극복하는 민주시민 양성이 참포교

이 시대의 불자는 부처님의 출가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당신의 온갖 기득권을 거부하고 출가하셨던 본래 뜻은 과연 무엇이었겠는가? 전쟁이라고 하는 폭력적 방식으로 고대 노예제 사회로 통합하는 과정에 있었던 당시에 카필라라고 하는 소국가의 책임자로서 느꼈던 싯타르타 태자의 민족적 고통을 느낄 수 있는가? 편안함과 안락함이 궁박으로 나가보면 타인의 고통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당하는 싯타르타 태자의 고뇌를 이해할 수 있겠는가?

민족모순까지를 담지하고 당시의 제반 차별을 총화한 계급차별질서의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하고 이를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기득권을 버리는 출가를 행한 싯타르타 태자의 기본정신을 사장한 채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깨달음이란 뭔가 했을때 사성제에 입각한, 무명의 극복을 위한 8정도 6바라밀이며 그것은 곧 연기론적 생명관, 세계관이다. 현실고를 바탕으로 한 깨달음인 것이다. 하늘도, 땅도, 사람도, 부처도 모르는 깨달음이라는 게 있다고 하나 그 내용은 아마 최첨단 전천후 관념론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깨달음이 우리들에게 실천성으로 외화된 적도 없고 구체적인 중생구제의 힘으로 발현된 적도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불교의 가르침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자신의 사상을 바꾸는 실천적인 행위가 따라야지, 그 실천적 행위를 외면한 깨달음의 추구는 존재할 수도 없고 가능할 수도 없다.

지금 이 시대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현하신다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겠는가? 당시대의 부처는 고고한 모습으로 위의를 갖추고 멋들어지게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햇빛에 그을리면서 민중에게 고단한 모습으로 전법하셨듯이 고단한 민중의 삶속에서 민중의 모습으로 민중과 함께 할 것이다. 가진자의 위세에 빌붙어 개인의 영달을 꾀하거나 민의를 외면하는 종단의 일부 상층부의 잘못된 행위를 질책하고 경전만을 탐구하거나 개인적 깨달음에 탐착하면서 구체적인 중생의 삶과 유리된 불교를 쫓는 행위를 꾸짖을 것이다. 우리 민족의 절대절명의 과제라 할 수 있는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정진하고 있는 이 시대의 민중이 곧 보살의 화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분단조국의 민주화와 통일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당면의 민주정부수립을 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포교를 잘해도(잘할수도 없겠지만) 전 민족의 현실고는 그대로 남아 있으며 사회민주화=불교자주화도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외세와 독재를 극복하는 민주시민을 길러냄이 진정한 포교인 것이다.

◇불교개혁과 청년불자의 역할

정권유지의 도구 오명 씻어야
매종·매불세력 척결이 과제

며칠 후면 불교집안에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할수 있는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게 된다. 나는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할 때마다 한편으론 기쁨과 고마움을 느끼며, 다른 한편으론 안타까움을 느끼고 새로이 마음을 가다듬게 된다. 왜냐하면 붇다는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의 스승이었음이 그 첫번째 까닭이요, 지금 우리가 그 뜻과 이루려고 했던것을 이어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그 두번째 이유이다. 기쁨을 느끼기 보다는 슬픔과 고통을 받는것이 더많은 현실에서 청년불자가 풀어야할 당면과제가 산적해 있다. 식민지 조국이라는 현실과 이러한 사회속의 종교로서 존재하는 불교의 현실을 개혁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가 청년불자들에겐 주어져있다. 굳이 연기(緣起)를 말하지 않더라도 이 이중의 과제는 별개의 것이 아닌 불가분의 관계임을 청년불자들은 명확히 알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청년불자의 역할을 불교계에 한정지어 간단히 몇가지만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불교가 해방이후부터 지금까지 정권으로부터 철저히 탄압받고 소외받아 왔으며 정권유지의 도구로 쓰여져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 생각된다. 이렇게 되어왔던 것을 합법화해 주는것은 '불교재산관리법'을 비롯한 불교를 옥죄고 가두어 두는 불교관계 제악법들이다. 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청년불자들의 해야 할 일은 불교를 탄압하고 침탈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불교관계악법철폐투쟁을 힘차게 벌여나가야 한다. 이속에서 정권의 본질을 폭로하고 패퇴시키는 대정부투쟁을 해야 할 것이며 민족종교로서의 제 모습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것과 함께 불교계내의 메종, 메불세력을 척결하는 투쟁을 벌여나가야 한다. 제주도에서 서의현총무원장의 김영삼 지지 망언, 강남·강북 두개의 총무원에서도 나타나듯이 이는 정권에 빌붙어 종권을 유지하기 위한 반불교적 행각임을 폭로하고 불교계에서 축출하는 투쟁을 벌여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종단을 원래 승가의 모습인 사부대중의 공동체로, 민주적으로 바꾸어 나가야만 한다. 세번째로 80년대 이후 불교계의 의식수준은 현격히 높아졌으나 아직도 불교대중의 의식수준은 차별이 심하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부처님도 근기에 맞게 대기설법을 하셨듯이 청년불자들은 자기가 속한 사찰이나 집단속에서 선도적이고 모범적으로 모든 불교대중들을 의식화 시켜내고 조직화를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했을때 사부대중은 힘을 가지고 위에서 목적의식적으로 언급했던 종단개혁을 보다 빨리, 완전하게 이룰수 있으리라 본다.

마지막으로 청년불자들은 불교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맞는 불교를 재정립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일반대중들이 쉽게 불교를 접하고 이해하며, 불교사상이 진정 인간존엄, 생명존중, 평등, 평화의 사상임을 알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할때 불교는 관세음보살의 천수천안이 되어 고통받는 민중에게 삶의 지표로서, 민중의 사상적 지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한국불교속에서 청년불자의 역할을 몇가지 살펴보았다. 이외에도 청년불자들에게 주어진 일들은 많이 있으리라 본다. 흔히 우리는 청년의 특성이 있다고 한다. 이 특성의 장점을 가지고 부처님께서 마지막까지 말씀하셨던 '정진'을 한다면, 우리가 이루려고하는 평등, 화합의 공동체는 머지않을 것이다.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서라.' 이 말은 지금 우리를 보고 한 말씀이 아닌가 싶다.

고 현 등
〈불교대 학생회장〉

중외제약 개교 86주년을 축하합니다
렌즈관리 용품도 중외제약 입니다

하루 한 번 세척하면서 단백질제거까지—
"바로 SPC액이에요"

중외 SPC액—렌즈관리의 올바른 방법과 편하게 하는 방법, 두가지를 만족시킵니다.
렌즈는 하루만 착용해도 각종 이물질이 끼이게 되죠. 세척과 헹굼, 소독까지 끝냈다고 해서 이물질이 다 제거되는건 아니예요. 그냥 지나쳐버리기 쉬운 단백질을 깨끗이 없애야 되죠. SPC액은 렌즈를 세척하는 기능과 단백질을 제거하는 기능, 두가지 모두를 만족시켜 드릴 수 있어요. SPC액으로 하루에 한 번 세척하면 그것이 곧 단백질을 제거하는 거죠. 어때요? SPC액 하나로 세척하면서 단백질 제거까지— 참 간편하겠죠? 한 번 써보세요./ 매일매일 SPC하면 눈도 참 편해요.

세척과 단백질제거를 동시에 해결하는 중외제약 SPC액—
간편성 3가지 계면활성 물질의 복합처방, 세척과 단백질제거가 동시에 이루어져서 관리가 편합니다.
무자극성 쉽게 헹구어지는 수용성, 자극을 주지 않기 때문에 눈에 편합니다.
안전성 소르빈산 함유, 오염의 문제점을 해결했기 때문에 눈에도 안전합니다.

수입완제품

눈에 참 편하고 경제적인 SPC액

편한 눈, 편한 관리—
SPC 에스피씨 액
●권장소비자가격 : 1병 - 5,500원(2개월분)

행굼액 뷰티콘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새로나온 행굼액

회 원 모 집
SPC를 비롯, 중외 렌즈관리용품을 구입한 후 라벨을 보내주세요. 자동으로 회원가입이 되며 신제품 샘플 무료제공, 콘택트렌즈 관리요령 책자 등을 보내드립니다.
■ 보내실곳 : 151-600 남서울우체국 사서함 96호 (주) 중외제약 P M실

콘택트렌즈 관리상담실 운영 중외제약에서는 콘택트관리 부주의로 인한 각종 문제점을 해소코저 상담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지점·사업소 상담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점·사업소 상담실 ● 본사 : 841-1212(교 283 284) ● 북부 : 968-1332~5 ● 인천 : 83-4197, 7564 ● 수원 : 39-6220~1 ● 부산 : 531-7575~9 ● 마산 : 55-2256, 6161 ● 대구 : 354-5671~3 ● 광주 : 528-4806~8 ● 전주 : 254-3038, 77-0209 ● 대전 : 621-5981~3 ● 청주 : 57-1751~2 ● 원주 : 42-0401 ● 제주 : 52-5905

개교 특집 좌담:공과대학 현황과 이후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첨단과학시대 "공대를 살리자"

고도산업사회가 되면서 우리사회는 기술인재양성의 중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국가적 정책으로 기술공학교육의 육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게 된다. 우리 대학도 공과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집중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열악한 교육환경 등의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우리 공과대의 제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좌담을 마련하였다. 〈편집자〉

새로운 공과대 위상

▲사회자:21세기를 지향하면서 국가시책의 하나로 이공과대학에 대한 집중적 육성방안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우리대학도 이에따라 근년에 들어 다각적인 지원을 공과대학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거론하기 전에, 먼저 오늘날에 있어서 공과대학의 본질적 사명과 공학교육의 강화의 당위성을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신효선:공과교육의 사명을 크게 세가지로 나눠, 연구활동을 통한 과학기술의 발전을 도모함과 우수한 기량의 기술인재를 양성하는 일, 그리고 산학협동을 통해 산업사회를 지원하는 일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산업계의 발전은 공과대학의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과대학의 전반적인 상황은 산업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엔 역부족인 것이 사실입니다.

▲조성구:교과서적으로 말한다면 공학이란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사용자인 인간이 요구하는, 경제적으로 가치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행위에 대한 학문입니다. 즉 과학기술에 경제적 가치부여의 작업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의 패턴을 그대로 답습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공학교육이 근본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도 없었고 국가적 차원에서 장기적 육성방안의 모색도 없었던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무역장벽 등이 심각해짐에 따른 경제성·생산성 제고문제의 해결이 당면한 현안이 되었습니다. 그 자구책으로 국가적 차원의 공학교육에 대한 지원이 서둘러지고 있음을 봅니다. 보다더 적극적으로 국가가 공학정책, 과학정책을 수립하여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게끔 공과대 육성과 지원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입니다.

육성방안 강구 시급

▲사회자:우리대학의 경우를 염두에 둔다면 공과대의 현황은 대체로 어떻다고 말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지난해 비로소 기계공학과가 신설되는 등 공과대의 새로운 위상을 세워나가고 있는 점에 대해 말씀해주시죠.

▲신재호: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정신적 자산이 늘어남과 동시에 기술개발에 의한 물질적 풍요를 구가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기술개발과 실제생활의 연구에 이바지하는 공과대의 사명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세계대학사를 살펴보건대 공과대학을 키워야 우수한 대학으로 자리잡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대학도 공과대를 명실공히 제 궤도에 올려놓아야 우리대학의 대내외적 성가를 드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공과대는 규모면에서 빈약합니다. 또한 공과대 발전에 대한 학교당국의 정책적 의지나 목표설정의 우선순위가 배려되지 못해왔던 점이 아쉽습니다.

▲신효선:그러나 학교당국도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공과대의 기존학과와의 학문적인 연계성의 필요성에 따라 기계공학과를 신설하는 등 적극적인 공과대 발전을 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무척 다행스럽습니다.

물론 공간, 기자재 확보 등 어려움이 있지만 차츰 개선 극복되리라 기대합니다. 재단이나 학교당국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지속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조성구:앞으로도 공과대가 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과구성 등이 구태의연한 틀을 유지한다면 대학간의 경쟁에서 뒤지고 말 것입니다.

소위 첨단과학이라고 일컬어지는 재료공학·우주과학·생명공학에 대한 학문적 수용이 절실합니다. 날로 달라지는 새로운 과학의 발전추이에 따른 학과개설과 개편이 뒤따라야 합니다.

시설보완 등 투자있어야

▲사회자:물론 공과대학이 학문적 발전추세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변신을 해야하겠지만, 구체적 대안없는 규모확장은 교육내용의 부실 등을 초래할 여지는 없는지요. 현행 규모에서 내실을 꾀해야 하지 않을까요.

▲신재호: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현재의 여건에서라도 최대한의 증설·증원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시설보완 등 투자가 후속적으로 뒷받침되면 됩니다. 뿐만아니라 우리 공과대를 거쳐나간 다양한 인재들이 산업계 요소요소에 투입되어 소위 대기업체 같은 곳에서 생산부서에서 연구소에 이르기까지 막강한 멘파우어를 형성했을때 우리공과대에 되돌아오는 피이드백 효과는 상당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실험실습실등 공간의 제약성으로 인해 당장은 교육의 수월성을 달성하기는 부족한 점이 있지만 재단이나 학교당국의 후속적 투자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면 크게 염려할 바는 아닙니다. 금번 공과대 학과별 대학평가제 실시에 따른 희비가 엇갈리는 대학도 있습니다만, 이를 계기로 재단의 공과대 투자확충의 압력(?) 효과도 전혀 없는건 아닙니다.

▲신효선:오늘날 산업체에서 자체기술개발이 부진하고 외국기술도입도 한계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학이 실업체의 기술적 기대와 요구에 좇아가야합니다. 우리 공과대가 교수인력의 부족, 공과교육예산의 영세성, 교육기자재의 부족 등으로 초래되는 공학교육의 부실의 여지가 있더라도 대학은 최대한 공학교육의 영역을 확장하고, 아울러 내실을 기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점에 대해선 사립대의 경우 재단이나 학교당국만이 책임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체에 배출하는 인력의 60%를 사립공과대가 충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산업체는 물론 이거니와 국가적 차원에서 절대적 지원이 시급합니다.

열악한 교육환경

▲사회자:결국 우리 공과대는 산업체와의 공조나 기업체의 지원이 미미하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국가의 정책적 배려도 있어야 하겠지만 학교당국의 섭외력도 보다 강화되어야할 것 같군요.

그럼 이제 우리 공과대의 현황을 좀 냉철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과정, 교원 확보, 교육환경, 실험실습비 등 재정지원의 문제에 대해 차례대로 말씀해주시죠.

▲신재호:먼저 공학교육의 질을

신 효 선

참 석 자

신 효 선 〈공과대학장·식품공학과 교수〉
신 재 호 〈전자공학과교수〉
조 성 구 〈산업공학과교수〉
사 회:최 순 열〈본사주간·국어교육과 교수〉
일 시:1992년5월4일 오후 5시
장 소:공과대 학장실

신 재 호

높이기 위해서는 타대학의 추세는 그렇습니다만, 현행 이수학점 140학점이 160학점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합니다. 일반교양강좌의 선택여지를 학과에 맡겨주는 한편, 점차 줄여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공학발전의 단계에 부합되는 커리큐럼이 그때그때 신축성을 가지고 적정하게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조성구: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현행사정으로는 전공기초 이수에만 급급한 실정입니다. 뿐만아니라 실험실습기자재 등 설비가 미비하다보니 긴요한 과목의 개설도 부득이 유보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대학원의 커리문제도 심각합니다. 교원수급의 불균형 등으로 인해 최소한의 강좌만 개설되고 있습니다. 날로 변화·발전하는 학문성과를 대학이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효선:교원확보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대학의 전반적인 현상입니다만 교수1인당 학생수가 너무 가중하다는 겁니다. 90년 기준으로 교수1인당 35명입니다. 서울대의 경우 31명인 것을 참고한다면 상대적으로 일정수준이라고 말할수도 있겠으나 이런 수준으로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긴 어렵습니다.(세계 유명공과대의 경우 4~5명당 교수1인 인데…) 그러다보니 교수들의 책임시간 9시간은 과중한 것입니다. 적어도 1년에 6강좌를 맡아야 한다는 현실이고보면 공과대의 경우 교수능력을 차치하더라도 교육의 심화가 이루어지기는 난망합니다. 실제로 우리 대학의 경우 공과대 교원확보 법정기준의 43%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바로 학과의 영세성에 기인하는 바가 큽니다.

조 성 구

▲사회자:이제, 교수·학생 공히 큰 불만요인이 되고 있는 교육환경 문제에 대해 짚고넘어가야 하겠습니다. 현상은 어떠하며 개선방도는 무엇이겠는지요.

▲신효선:일차적으로 절대공간의 부족입니다. 현행 공과대의 사용건물이 구조적으로 불때 공대를 위한 건물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효율적인 공간이용이나 시설설비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냉·난방시설이나 상·하수처리시설 등 기본시설이 제대로 안된 실정입니다. 그리고 기자재도입을 위한 재정지원이 미미합니다. IBRD·OECF차관 정도가 일부 도입된 바 있을뿐이고 실제로는 신기술 기자재 구비라든지 교수연구를 위한 환경개선은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실험실습비로 최소한의 교육효과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재호:대규모의 교육차관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백만원 정도의 재정수준은 소모성경비에 지나지 않습니다.

▲조성구:무엇보다도 교육부의 공과대시설기준령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게 낙후된 기준을 정해놓고 있으니, 대학은 그 기준에 겨우 맞추고 있는 넌센스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공과대의 실험대가 목재로 되어있습니다. 이는 공과대의 교육환경이 낙후된 정도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교육교재가 없는 공학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신 공학기자재나 하이테크 설비가 최신고도화되어 컴퓨터화된 분석기 하나도 기본단위가 십만불을 상회하는 것들입니다.

재정적 지원 과감해야

▲사회자:그렇게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그나마도 우리 공과대가 유지되는 것은 가히 경이적인 것같습니다. 그만큼 교수들 개인의 교육적 열성에 크게 힘입고 있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소용될 재정적 조건에 대해 말씀해주시죠.

▲신효선:앞서 지적했듯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나 산업체·기업체의 재정지원이 미미한 실정인데, 지난해 국고보조 3억중 1억3천만이 공과대로 책정되고 아울러 학교비 1억3천만이 지원되어 그나마 부족한 기자재 확보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공과대전체에 2억정도, 전자공학과에 2억, 기계공학과에 1억5천 정도의 집중적 투자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구:그정도는 결코 흡족한 수준이 아닙니다만 아쉬운대로 그런 수준이라도 지속되기를 바랄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미미한 투자 수준으로 기자재 설비가 미흡하다보니 교수개인차원의 각종 연구비 수혜 기본정책이 충족되지 못해 신청조차 못합니다. 빈곤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사회자:그나마도 학교당국에서는 공과대에 상당한 관심과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금년 에도 예산에 의하면 공과대 실험실습비가 학생1인당 전년도보다 40%정도 상향된 4만4천 정도가 책정되고 공과대 전체적으로보면 10억정도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효선:문제는 그 실험실습비가 과연 어떻게 쓰이느냐가 문제입니다. 엄격히 말해서 그러한 실험실습비는 근본적으로 기자재구입비나 시설확충자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것은 공과대교육에 그야말로 실험실습에 소모되는 시약이며 비이커니하는 소모품비며 유지비에 불과합니다. 물론 올해 기자재구입비가 어느정도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호:그렇습니다. 실험실습비는 기본적으로 교수연구에 필요한 기자재도입의 용도로 쓰이지 못합니다. 그러한 예산운영은 교육법상으로도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기자재구입비나 집기구입비 등이 별도로 예산에 책정되어합니다. 푼돈정도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일례를 들면, 워크스테이션 이라는 컴퓨터기재를 구입할때 약정서에 의하면 매월 기본유지비로 40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점을 학교당국이 도무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장기발전방안 모색

▲사회자:그러니까 실험실습비는 오로지 학생들을 위한 교육소모품비에 지나지 않는군요. 진작에 긴요한 기자재 구입 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대규모의 집중적 투자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끝으로 향후 공과대의 발전방안 등에 대해 언급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효선:무엇보다도 공과대장기발전기획 위원회같은 것이 구성되어 장기간 스터디하여 청사진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특정학과를 중점적으로 육성하되 기술학과와 주변학과가 상호연계성을 가지고 공히 수준향상을 꾀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기초과학과 기술과학이 밀접한 관계에 있는만큼 소위 이·공과대학이 상호공존하는 학문적 공동체를 이루어나가야 합니다.

▲신재호:절대공간의 확보가 시급합니다. 우리 공과대도 20여년의 역사인만큼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여 구체적 실천방안을 세우고 그에 따른 투자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어느 진단에 의하면 십수년내에 대학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사태가올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기술인재의 사회적 요구는 증대될 것이므로 공과대만은 더욱 육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비하여 우리 공과대는 열악한 환경개선에 대한 전망을 세워야 합니다. 제3캠퍼스 건립안의 구체화 등의 비전을 제시해주어야 합니다.

한편, 효율적인 행정적 분산이 이루어져 교과내용이나 교육환경에 대한 의사결정이 공과대중심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대학의 전통으로 보건데 그동안 인문사회학이 중점적으로 육성되어온 분위기였습니다만 이제 재단이나 학교당국이 한 대학의 평가는 공과대의 평가가 기준이 된다는 현실적 인식으로 혁신적 개선이 있어야 합니다.

▲조성구:올해부터라도 우선으로 공과대 향후발전계획을 연구하는 팀을 구성할 수 있는 예산이 배려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현황진단과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맥서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한정적 예산으로는 단기적 개선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심과 투자가 요구됩니다. 앞으로는 공과대를 육성하지 않고서는 대학간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인식이 절실해야 합니다.

▲사회자:장시간 여러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과대의 현황을 파악하고 보니 비로소 공과대의 발전적 향후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전망이 서는 것 같습니다. 계속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공과대를 위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록·정리 이병민 기자〉

공학 교육의 영역 확장과 내실 겸비해야
목재 실험대…"교육교재없는 공학교육 없다"
대규모 교육차관 도입…기자재 확보시급

20살 여성을 위한 에띠앙 광고페이지

개교 86주년을 축하합니다

20살 여성을 위한 화운데이션, 란제리 – 에띠앙

좋아하는 마음이 빨강색이라면,
사랑하는 마음은 파랑색이야
그래서 에띠앙은 빨강, 파랑

〈에띠앙 사랑이야기 10〉

하나, 좋아하는 마음이 아이스크림 같다면
사랑하는 마음은 은은한 香水같을꺼야
두울, 좋아하는 마음은 한낮의 뜨거운
태양같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밤새
쌓이는 하얀눈이야
세엣, 좋아하는 마음의 표현은 사랑을 선물로
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은
붉은장미 한다발을 들고 기다리는 밤이야
네엣, 좋아하는 마음은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아무말도
못하는거야
다섯, 좋아하는 마음이 크림섞인 커피라면
사랑하는 마음은 블랙 커피야
여섯, 좋아하는 마음이 빨강색이라면
사랑하는 마음은 파랑색이야
일곱, 좋아하는 것은 손수건 적시며
이별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뒤돌아 눈물짓는거래
여덟, 좋아하는 사람 편지엔
사랑한단 말 뿐이고, 사랑하는
사람 편지엔 그저 한숨뿐이야
아홉, 좋아하는 마음은 관속에 누우면
끝나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지옥까지도 끌고 가는거야
여얼, 좋아하는 마음의 시작은 귀로부터
시작되고, 사랑하는 마음의 시작은
눈에서부터 시작되는거야

에띠앙 ETIENNE

20살 감각의 색다른 아름다움에의 초대,
그리고 활동적인 젊음을 위한 편안함까지

「스물, 스물하나. 이 시절 우리의 가슴은 하트가 된다.
솔직하기에, 신선하기에 우리의 가슴은 하나가 된다」
여자나이 20살.
자기만의 멋을 강조하고 자기표현에 적극적인 세대라 할 수 있겠지요. "속옷을 잘 입어야 진짜 멋쟁이"란 표현을 빌리지 않더라도 아름답고 예쁜 나이 20살.
어떤 일에서건 열의를 아끼지 않으며, 독특한 개성을 내보이고픈 바로 그 20살 여성의 꾸밈없는 아름다움을 그대로 내면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란제리를 생각해 보았어요.
그것은 부드러움과 심플(Simple) 함을 테마로 하는 촉감의 변화를 시도한 에띠앙이랍니다. 레이스 사용을 자제하고 선(線)을 중시한 절제미(節制美)와 겉옷과 잘 어울리는 대담한 칼라의 선택, 그리고 활동적인 젊음을 위한 편안함까지 고려해서 만든 신세대 감각의 란제리가 에띠앙이지요.
에띠앙! 그래요. 그 예쁜 나이가 내자신일 수도 있다는 색다른 정성으로 예쁘고 편하게 만든 것이 에띠앙이예요. 좋아하는 마음 빨강과 사랑하는 마음 파랑이 어우러져 농도짙은 패션 칼라에 잘 배색된 것이 에띠앙이랍니다.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 잘 곁들여진 20살 여성을 위한 화운데이션 란제리 – 에띠앙.
그래서 에띠앙을 빨강, 파랑이라 부르는가 봅니다.

강수진·25세, 에띠앙 디자이너
90년 인하대학교 의류학과졸업

Venus 비너스 株式會社 新蘭

북한 승계구도

총 비서직 승계이후 94년 주석 선출 유력

(기획) 북한 권력승계 완성과 이후 정책적 전망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이 오늘(6일)부터 서울에서 열린다. 6차 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에 대한 실질조치와 핵사찰 수용여부, 민간외교의 범위정도 등 어느회담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6차회담까지의 남·북한 국내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그 판도가 달라 이후 남북한 통일논의에 있어 중요환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남한의 경우 집권당의 총선패배, 재벌당의 부상이 그것이고, 북한의 경우 최근 외신을 통해 들어오는 후계자승계 움직임이 중요한 변화요인으로 지적된다.

이에 최근 북한에서 일고 있는 권력승계의 움직임에 대한 분석과 이후 북한의 대외 개혁·개방정책 방향을 전망하고자 한다.

〈편집자〉

◇4월25일「인민군 창건 60주년 기념일」을 맞아 북한의 김정일비서가 조치한 6백64명의「군사칭호」수여는 군부를 김정일체계로 확고히 구축한 것을 입증했다. 그러나 절차상의 권력 승계는 김일성주석의 임기가 만료되는 94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며 이후 북한의 대외개방정책은 중국보다 협소한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권력승계는 절차방식의 어려움 뒤따라
당분간 북한 개혁·개방정책은 협소화 될 듯

김정일비서의 군권 장악과 실질적인 후계승계의 완성

북한의 김정일비서는 '인민군 창건 60주년 기념일'을 맞아 원수로 진급한 인민무력부장 오진우를 비롯하여 차수진급자에게 원수별과 차수별을 달아주고 16명의 대장을 포함, 모두 6백64명에게 장성급 '군사칭호'를 수여하였다. 이로써 지난해 말 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된 이후, 그리고 최근 원수로 추대된 이후 첫 군권(軍權)을 행사한 것으로 중앙방송이 보도했다. 이번에 취해진 대대적인 군진급조처는 인민군 창설후 최대의 장성급인사로서 군부를 김정일체제로 확고히 구축하는 실질적인 최종조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진급식에서는 오진우와 최광 군총참모장, 이을설 호위총국장, 백학림 사회안전부장, 김광진·김봉율 인민무력부 부부장, 주도일 국방위원, 이두익 당 중앙군사위원, 최인덕 김일성 군사대학 총장 등 8명의 차수진급자에게 원수별과 차수별을 김정일비서가 직접 달아주었다. 나아가 소장(우리계급으로는 준장)에 5백24명이나 승진시킴으로써 인민군내에 3대혁명소조를 대거 발탁, 후계자로의 권력승계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군내부의 기반을 확고히 한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러한 조처가 김주석 생일과 인민군 창건 60주년을 전후로 하여 이루어진 것은 김정일비서의 군권 장악이 실질적인 수준에서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기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번 행사에는 중국의 양상곤 국가주석, 일본 자민당—사회당 대표단 등을 비롯하여 외국의 국가원수가 대거참석한 상황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군부내에서의 위상변화는 김정일 당비서가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과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직으로 임명(90년)되고 군 최고사령관직으로 추대(91년 12월)된 이후 취해진 조처로써 김정일비서가 조선로동당과 인민혁명군의 실질적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강고히 함으로써 '실질적인 후계자의 승계'를 의미하는 정치적 함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한편 '김정일비서로의 후계자 승계가능성'과 관련하여 국내외의 주목을 받았던 제9기 3차 최고인민회의가 만수대의사당에서 3일간의 회의를 마치고 폐막되었다.(4월8일—10일) 그러나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후계자의 승계문제와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차원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번 회의를 전후로 하여 '후계자의 실질적 승계'를 확인해주는 언명이 김주석의 발언(김주석 생일을 축하하기위해 방문한 미국의 워싱턴 타임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의 발언)을 비롯하여 북한지도부에 의해서 '실질적인 후계자승계'가 만족스럽게 이루어졌음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였다.

김비서로의 후계체제구축의 공고화

김정일비서는 금년 1월에는 '사회주의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노선'이라는 제하의 담화(당 중앙위원회 책임간부와의 담화)를 발표한 바 있다. 이 담화는 지난해 5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는 내용의 담화에 이어 '북한사회주의 발전의 총노선'을 천명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김주석이 수행한 정치사상적 지도노선의 천명 등 중추적 역할을 김정일비서가 명실상부 대행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동안 김비서는 막후에서 실질적인 당의 정책을 입안, 집행해왔지, 이렇듯 북한의 총체적인 건설노선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적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특이 이 담화를 통해 김비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한계성을 지적하면서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속에서 주체사상의 기치아래 '우리식 사회주의의 내용성'(=인민정권의 강화)을 더욱 확보해나가자는 요지의 발전전략을 역설하였다. 따라서 김정일비서는 '주체사상의 체계화'를 이룩한 후계자의 입장에서 이제 북한의 장기적인 노선과 정책을 제시하는 실질적인 후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당, 정, 군의 실질적인 지도자로서의 김비서의 등장과 때를 같이 하여 김비서의 역량과 위대성에 대한 정치사상적 교육 역시 강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중의 하나가 이번에 새로이 발간한 '김정일선집'과 총서 '불멸의 향도'출판과 이에 대한 대대적인 학습은 물론이고 김비서의 최고사령관직 추대등에 대한 각종 군중집회와 축하행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김정일비서의 생일을 기해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소년단 전국연합단체대회'에서 사로청위원장인 최용해는 북한의 고위간부로서는 최초로 김정일비서를 '경애하는 아버지' '친애하는 아버지'등으로 호칭, 후계자에 대한 절대적 충성심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밖에도 김주석의 80회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주체사상 전국토론회'(4월 1일)에서는 처음으로 '김정일 서기를 당과 국가와 군대의 수위에 모시고'라는 축하문을 채택한 것이나 최근 로동신문의 내용에 '위대한 지도자 김정일각하'라는 표현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 등의 정치사상적 일체성의 강조는 후계자승계와 관련된 중요한 변화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지난 1월과 2월에도 당 정치국원 겸 당비서인 계응태와 군부내의 최고실력자인 오진우 인민무력부장이 기명논설을 통해 김정일비서를 '위대한 영도자' '영원히 운명을 함께 하는 충신과 효자로써 억세게 싸워나갈 것'임을 역설하였다. 이처럼 당과 군의 최고실력자중의 한 사람이 전례가 드문 기명논설을 통해 김비서의 위상을 강화한 논설을 발표한 것은 김비서로의 후계자 승계에 따른 대중적 지지와 충성을 확산시켜려는 정치적 조처로 보인다.

'대원수'로 추대된 김주석과 절차적 승계문제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전후로 하여 김일성주석이 대원수로 추대되고(4월 13일) '북한군 창건 60주년 기념일'을 맞아 김정일비서가 원수로 추대됨으로써 북한은 김정일비서로의 후계자승계를 위한 실질적 조처를 취했다. 따라서 김정일비서는 주석직과 총비서직 그리고 당중앙군사위원장과 국방위원장의 직책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실권을 장악하였다.

특히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사회주의헌법'을 수정, 보충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는 국가사회제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튼튼한 법적 담보가 마련되었다고 그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현재로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고 있지는 않아 쉽게 예단할 수는 없으나 후계자 승계와 관련된 주요한 헌법상의 수정을 수반하지 않았나하는 추측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예를 들면 현행 사회주의헌법 93조에 따르면 "주석은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과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주석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직을 겸직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일서기가 작년말 최고사령관에 취임한 반면, 국가주석은 여전히 수령인 김일성이 맡고 있어 헌법규정과 정치적 현실사이의 괴리감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일본을 방문한 황장엽로동당서기 역시 '헌법조항의 수정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현행 헌법 90조에 따르면 주석선출의 권한을 최고인민회의에 부여하고있는 반면 당총비서는 당대회에서 선출된 당중앙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선출하게 되어있다.(로동당 규약 24조) 따라서 현재의 김일성 국가주석은 90년 5월에 개최된 제9기 1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주석을 재선출했기 때문에 관례(임기 4년)대로라면 4년후인 94년에 가능하다. 한편 총비서의 경우는 임기규정도 없고 당 전원회의가 6개월에 1회이상 소집토록 규정되어 있어 승계절차가 주석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쉽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총비서직 역시 7차 당대회에서 뽑을 수도 있어 간단한 문제만은 아니다.) 따라서 이후 권력승계의 절차적 방식은 주석직의 승계보다는 현실적으로 용이한 총비서직의 승계가 우선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후계자의 승계시기문제는 비단 이러한 형식적 절차상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북한의 권력구조의 특성상 '당의 절대적 영도'를 대단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군과 행정부에 대한 당의 우위와 지도성을 관철하는 형태로 총비서직을 적당한 시기에 우선적으로 승계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김주석은 '국가의 수반' '국가주권의 대표자'로서의 주석이 갖는 상징적 위치를 당분간 유지하면서 후계자의 안정적 권력승계를 계속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는 모든 정치—군사적 직위를 내용적으로는 물론, 형식적으로 후계자에게 승계했을 경우 '불가피한 사태로 인한 내외적 정세변화'에 김비서가 적응치 못했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당장은 김주석이 감당하고자 하는 정치적 배려의 차원도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후계자 승계과정은 등소평의 정치사상적 지도와 강택민총서기의 실무적인 지도를 결합함으로서 천안문사태이후의 중국사회주의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경험을 상당부분 원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말해서 수령의 역할을 당분간 유지한 가운데 김일성주석의 후견속에서 김정일비서체제의 강화를 모색하는 방식이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북한의 개혁과 개방정책은 중국의 특구정책과 달리, 보다 협소할 형태로 진행될 것이다. 그 이유는 우선 북한은 중국과 달리 지리적으로 개혁정책으로 인한 자본주의적 유산의 침투에 훨씬 쉽게 노출되기 쉽고, 북한의 건설노선 자체가 오랫동안 '주체화 자주'노선을 고집스러우리만큼 강력히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사상적으로는 '주체사상과 우리식 사회주의의 유지' 그리고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와 후계자로의 권력승계'를 변함없이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경제와 외교부문은 보다 현실주의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정책을 전개하면서 관련 법규의 제정은 물론 필요한 경우 제도적 개혁까지도 과감히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적 기조는 김정일비서로의 실질적인 후계자 승계가 이루어진 현재의 시점에서, 그리고 절차적 승계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최 성
〈고려대 정치학과 강사〉

천연과일쥬스는 해태가 좋습니다.
개교 86주년을 축하합니다 쥬스의 명문 해태음료

미스해태 강 경 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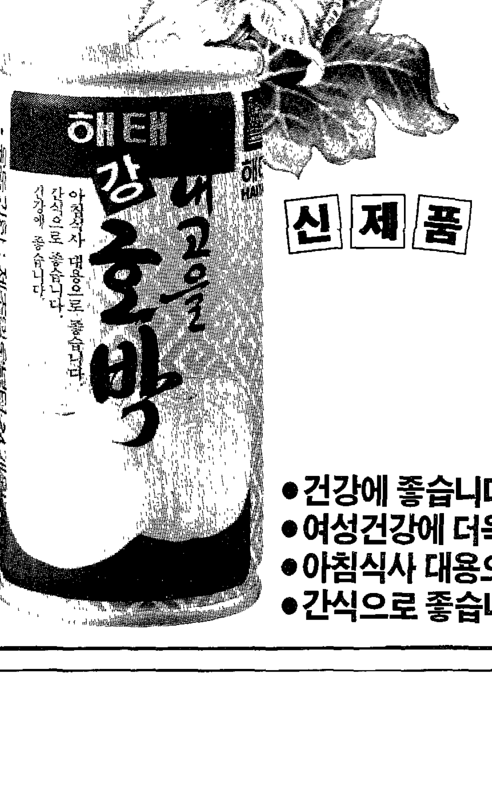
한라에서 백두까지, 내고을 강호박!
우리맛 좋을씨고, 내고을 강호박!

"우리 모두 해태 내고을 강호박을 좋아합니다!"

"생각보다 훨씬 맛있어요. 건강에도 물론 좋구요!"
비타민과 섬유질이 풍부한 해태 내고을 강호박은 여성들에게 특히 좋은 간편한 건강식입니다.

"속 든든하고 먹기 편하고 어디서나 그만입니다!"
칼로리가 풍부하고 소화가 잘되는 해태 내고을 강호박은 바쁜 사람들에게 좋은 간편한 대용식입니다.

"맛 좋겠다, 몸에 좋겠다, 식구들이 다들 좋아해요…"
달콤하게 감칠맛 나는 해태 내고을 강호박은 가족들이 모두 좋아하는 간편한 영양식입니다.



신 제 품

● 건강에 좋습니다.
● 여성건강에 더욱 좋습니다.
● 아침식사 대용으로 좋습니다.
● 간식으로 좋습니다.

이 시대의 우리문학

세번째

생활속의 모습을 진실하게 그린다

"정말로 진실의 아픔을 쓸 수 있겠는가"

보편타당한 사회적 진실과 전형의 속성 내재

비판적-환상적-포스트모던 리얼리즘은 허울좋은 명목

진리는 언제나 쉽게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하늘에 있지 않고 현실에 있는 것이라면, 그 현실을 엮어낸 인간의 실천을 통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 또 검증되는 탓이다. 대개 경험한 일에 대한 인식은 쉽게 이루어지는 법이다.

나는 종종 리얼리즘의 문제가 이 경험의 영역을 벗어나 지나치게 낯선 관념의 세계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본다. 그랬을 경우 리얼리즘은 쉽게 변질되고 만다. 리얼리즘의 본성이 관념보다 실체에 접근해 있는 배신으로 취급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사회적 진실을 배신할 의사가 전혀 없는 진보인텔리들의 리얼리즘에 대한 방황과 이탈은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되었을까? 이곳에서 리얼리즘에 대한 정체는 보다 엄격히 물어진다.

대단히 단순하고 우둔해보이는 반복서술이지만 리얼리즘은 사회적 진실을 추구하자고 생겨난 것이다. 이 단순명쾌한 지점을 이탈하여 리얼리즘을 찾다보면 길은 난데없는 벼랑으로 치닫는다. 그럴소지는 물의 용어로 가면을 썼더라도 본질에 있어 리얼리즘이 아니다. 그것을 구별시키는 근본속성은 크게 두가지이다.

하나는 생활속의 모습을 진실하게 그린다는 것이다. 우리는 생활속에서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울고 추우면 움츠리고 더우면 옷을 벗는다. 이것이 생활속의 모습이다. 그런데 이 생활속의 모습을 형체도 알수없이 뒤집어버리는 시인들도 있다. 왜 그래야 하는지는 대단히 어려운 철학을 통해 설명된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다.

까뮈의 '이방인'에서 뫼르소가 햇빛을 끌어들이는 관념적 기만이었다. 실존주의가 그것이다.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서도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안두희는 김구를 암살한 동기를 말할 때, 당일 식장에서 평소 싫어하던 '역마차'노래를 들었다고 말함으로써 뫼르소를 연상케 했다. 정도는 다르지만 이런 기만은 발생된 서정에 대한 시적 진술에서도 드러난다.

스민다 뱀이/내 몸속으로/퍼진다. 스며들어온 뱀이/내 몸 전체로/호수에 던진 잉크병처럼/꺼멓게/(중간생략)/그리곤 선이든 악이든 마구 따먹게 한다.

'문학과 사회'에 발표된바 있는 김혜순의 '오늘의 이브'라고 하는 시이다. 이 사는 대단히 독특한 껍질을 쓰고 있다. 까뮈가 실존주의라고 하는 껍질을 뒤집어씌워 공연히 햇빛을 끌어들이듯 시는 뱀을 끌어들여 이브에게로 나아가게 한다.

리얼리즘이란 이렇게 진실을 그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리얼리즘의 속성을 다 설명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진실이란 참으로 여러 차원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 개인이 체험한 진실은 종종 사회적 진실과 모순되기도 한다.

마라, 철철 넘쳐흐르던 아버지 이마의 피/조용히 멎는다. 숨결도 멎는다. 마라/뚫린 지붕으로 잘 보이던 하늘이 오늘 밤/우리들 이불 위에 내려앉는다.

투쟁이 격렬했던 시기에 나온 '패싸움'이라고 하는 시이다. 데모대에 참여한 아우가 던진 돌에 아버지의 이마가 다쳐 피를 흘리고 있으니 세상의 질서가 뒤죽박죽되는 패싸움을 하지 말라는 시다. 이런 시를 읽다보면 나는 인신매매단 이야기가 생각난다. 요지는 이랬다. 미모가 없어 고민하는 처녀가 있었다. 어느날 인신매매단에게 끌려갔는데 공교롭게도 여러 여자중 자신만이 못 생겼다는 이유로 되돌려 졌다. 그 처녀는 비관하던 나머지 자살해 버렸다.

이 고통스러운 농담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역설적인 가르침을 준다. 생각해 보자. 세상에는 별별일이 다 있으니까 이 일도 혹 있었을지 모른다. 만일 이것이 실재여서 경험자가 있다면 그는 진실하게 쓴답시고 이 이야기를 고지곧대로 쓸지도 모른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될까? 자본주의적 타락이 여성의 운명을 심각하게 해치는 이 인신매매단 현상이 앞의 이야기에서는 완벽하게 역전되어 버린다. 처녀가 인신매매단에 붙들려 가는게 더 났다는꼴이 되고 말태니말이다.

이러한 경우 개인의 진실은 사회적 진실을 감추는 역할을 한다. 이래서 리얼리즘은 생활

◇정치성을 가져야만 할 필요는 없다. 웃고, 울고, 움츠리고 하듯이 생활속의 모습을 쉽게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것이다.

탓이다. 이를 옹호하기 위해서건 부정하기 위해서건 필요 이상의 의미부여에 휩싸인 실체는 항상 안개 속처럼 뿌옇다. 이 뿌연 오리무중의 상태는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게 만든다.

작년과 올해를 지나며 리얼리즘에 대한 혼란은 상당히 커졌다. 특히 사회역사적 진보를 추구하는 변화개조세력의 내부에까지 짙은 안개가 내려 신념이 없는 예술가들을 방황케 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 그 당사자들은 한결같이, 예술의 사회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이제 다양하고 새로운 방법들이 동원되어야 한다는 투의, 제법 타당해보이는 이유를 들어 그 방황과 탈선을 합리화했다. 이 때문에 리얼리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다시금 문제되는데 이를 위해 나는 매우 상식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본다.

문학을 하는 자라면 누구나가 한번쯤 부딪히게 되는 질문이 있다. "진실의 아픔을 쓸수 있겠는가?" 바로 이것이다. 아직까지 이 질문이 요구하는 바를 정면으로 거부했던 시인은 없다. 문학상 수상소감이나 문제작으로 주목받는 인터뷰를 통해, 더 가까이는 등단할 때 이미 그 소감을 통해 다들 여기에 동의한다. 한마디로 진실보다는 거짓을 노래하는 것이 더 아름답고 훌륭한 것이라고 억지를 쓰는 정신나간 시인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모든 문학은 진실하다는 점에서 동일해야 한다.

그런데 왜 현실은 진실과 반진실의 문학으로 대립되어 갈등을 겪는 것일까? 리얼리즘의 문제가 제기되는 자리는 바로 이 자리이다. 리얼리즘은 아직까지 사회적 진실을 보장하는 한 방법으로 추구되어 왔다. 리얼리스트들이 리얼리즘에 대한 배신을 사회적 진실에 대한 론 선취된 관념에 있다. 바로 다음과 같은 관념이다.

자본주의가 도래하고 계급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사회적 진실을 그리는 자들은 낡은 사회체제를 비판했다. 이것은 리얼리즘의 첫번째 특징이다. 이로부터 관념하나가 형성된다. 정치성을 가진 비판적 문학이 리얼리즘 문학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이는 잘못이다. 건강한 사회에서 사회적 진실을 추구하는 문학은 그로 인해 일체의 정치적 비판을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사회적 진실이 리얼리즘인가, 정치적 비판의 수행이 리얼리즘인가?

이보다 더 애매한 관념도 있다. 지난 시기에 이미 리얼리즘은 감동적인 결작들을 많이 창조해냈다. 이로 인해 좋으면 리얼리즘이고 안좋으면 리얼리즘이 아니라는 관념이 형성되게 되었다. 이 역시 사회적 진실을 보장하기 위해 추구해온 리얼리즘의 취지를 해체시켜 보려는 관념이다. 그럴러면 좋은 문학과 안좋은 문학을 구별하면 되지 왜 리얼리즘이란 개념을 만들어 까다롭게 굴었더란 말인가?

다시 말하지만 리얼리즘은 리얼리즘일뿐 다른 무엇이 아니다. 비판적 리얼리즘이건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이건, 시에서건 소설에서건 모든 리얼리즘은 그것이 일단 리얼리즘인 이상 자체에 고유한 근본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 속성을 떠나서 존재하는 리얼리즘은 그것이 비록 환상적 리얼리즘따위의 용어로 채색되거나 현실비판적인 리얼리즘 정신 따위는 우연한 기회에 한 아랍인을 죽인다. 법정에서 왜 쏘았느냐고 물으니까 햇빛때문이라고 답한다. 이것을 생활속의 참모습이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대개 이러한 현상은 뭔가 각별한 사정이 있어 생겨난다. 뫼르소는 식민모국이었던 프랑스 사람이고 죽은 아랍인은 식민지 민중인데 역사속에서 제국의 시민은 식민지 민중을 사람으로 대하기 보다는 벌레로 대해 왔다. 그래서 혐오와 능멸을 당연시 했고 가공할 범죄를 서슴없이 저질렀던 것이다. 그런데 뫼르소는 이 진실을 말할 수 없다.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어처구니 없는 범죄인 탓이다. 당연히 진실을 회피할 출구를 찾는데 그 결과 그래서 사람은 정당하게 '약'을 따먹을 수도 있다고 죄악을 옹호하는 것이다.

이제 그 반대를 보자

첫번째는 아들을 쇠파이프로 즉이고/두번째는 아버지를 감옥에 보내고/세번째는 어머니를 부러뜨렸네/네번째는 우리 선미 어떻게 할런지/(후반생략)

강경대 열사의 아버지가 쓴 시이다. 시인은 세부를 온통 생활속의 모습 그대로 그리고 있다. 1, 2, 3행의 경험이 4행의 감정을 만들어 내는 것은 서정적 주인공만의 진실인것이 아니라 만인에게 보편타당한 사회적 진실이다.

적 진실외에 전형의 문제를 하나 더 제기하게 된다. 하나의 진실이 역사 발전의 합법칙성에 맞는 사회적 진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보편타당한 일반성과 개성이 보장된 개별성을 통일되게 얻은 전형을 주문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의 시에서 서정적 주인공이 가진 사상감정을 보면 실감이 날 것이다.

나는 보았네 비둘기 모이 주면서/너는 왜 웅크리고 모이도 못 먹니/(생략)/ 살아다오 살아다오 불쌍한 비둘기야/나는네 어미 마음 잘아는 경대 아빠야

강경대 아버지가 쓴 '비둘기 모이 주면서'라는 시이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두 가지 속성이 없으면 리얼리즘 시가 아니다. 환상적 리얼리즘이 어떻게 가능하고 포스트모던한 리얼리즘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는가.

김 형 수
〈시인〉

글 싣는 차례

1. 도시시의 새로운 정서
2. 대중소설의 대중성
3. 시의 사회적 진실
4. 역사의 소설화
5. 총평

달하나 천장에

시인의 숲속학교

전 봉 진
〈인문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1929년 일제하에 놓여있던 우리에게 격려와 사랑으로 보내온 사행시 '동방의 등불'로 친숙한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세운 뷔스바바라티대학은 자연속에서 진정 산교육, 스승과 제자가 가장 인간적인 인격의 만남을 통해 학문을 배우며 이상을 실현시켰던 교육의 낙원이였다. 그의 아버지가 명상의 장소로 선택했던 산티니케탄의 숲속에 1918년 동양은 서양을 통해 서양은 동양을 통해 이해하며 좁은 담벽으로 세계가 조각 조각 나누어지지 않는 지식의 자유를 얻기위해 이곳에 대학을 세운 것이다.

교문도 울타리도 없고 나무보다 높은 건물도 없다. 지금도 옛날과 다름없이 온갖 새들이 찾아들고 다람쥐, 원숭이들이 마음껏 뛰어논다. 여기에는 인간의 성장을 돕는 여러가지 상황이 주어져 있었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학생들은 건물의 천장밑에서 학문을 배우지 않았다. 항상 나무 그늘에 모여앉아 배웠다. 지혜는 그 속에서 덤으로 배우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자연속에서 숨쉴때면 강한 생명력과 생동감으로 즐겁고 행복하다. 그러나 매일 벽속에서 생활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좁은 마음의 벽을 만들며 괴로워하게 된다.

우리의 마음에 직관적 영향을 주는 환경과 상황은 교육의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자연은 우리에게 무엇이든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하며, 자연적 환경은 마음을 넓혀 준다.

지금 우리의 주변을 한번 둘러보라. 어디에 넓은 마음과 서로를 이해하며 사랑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 있는가? 날이 갈수록 교수와 제자 사이에는 의무적인 감정만이 오고 간다. 획일적이고 권위적이며 틀에 박힌 주입주의는 결국 참다운 교육의 이상에서 멀어져버렸다. 학문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사물을 옳게 받아들여 사랑하고 바른 판단력을 기르기 보다는 사실을 암기만해서 기억하는 힘을 기르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여기에는 기계적인 시험이나 그 결과가 큰 몫을 하고 있다. 1학년은 2학년이 되기 위해 2학년은 3학년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을 뿐이다. 학교에는 유능한 행정가도 많고 똑똑한 학생도 많다. 그러나 진정 훌륭한 스승과 제자는 찾기 어렵다.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는 사랑이 주는 최상의 가능성이다. 그것은 두 전체의 마음이 함께 어울려 서로에게 합치되는 것이다.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환경과 상황없이 사랑을 가르칠 수는 없다.

옛날 나간다대학의 어느총장과 교수들은 당시 만명에 가까운 학생들의 이름과 얼굴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타고르도 모든 학생의 인적 사항까지 알고있었고 또한 학교와 학생을 위해 헌신적으로 사랑을 실천하였다. 1940년 죽음을 예견한 타고르는 평소 사랑과 존경과 우정을 나누어 왔던 간디에게 그의 숲속학교를 맡기려했다. 그러나 간디는 그렇게 중요한 국가의 보물을 정치가인 자신은 말을 자격이 없다면서 겸손하게 사양했다. 결국 인도정부가 맡아 지금은 국립대학이 되었다. 타고르가 가장 두려워했던 관료적이며 행정적인 교육기관으로 변모해버린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전인도에서는 물론 세계 각처에서 타고르의 교육관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든다. 아직도 이곳은 타고르의 이상과 그의 영원한 사랑이 충만해있어 천국처럼 평화롭고 아름답다.

수화를 배웁시다 ⑧

일반인이 청각장애인을 대하는 태도

일반인이 청각장애인을 대하는데 있어 주의할 점이 많다. 청각장애인과의 접촉이 흔하지 않은 일반인들은 '청각장애인이 자신과는 다르다'는 편견으로 인해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거나 값싼 동정의 눈빛을 던지기가 십상이다. 하지만 그들도 하나의 고귀한 생명체이며 인격체이다. 같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보다 사는데 있어 조금 불편할 뿐이지 전혀 다른 부류의,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이 아닌 것이다. 그들은 일반인들이 자신들을 동정심이나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기 보다는 같은 사람으로, 같은 자격을 누리고 사는 평등한 존재로 인정해 주기를 바란다. 그들의 이런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대한다면 어색한 벽도 허물어질 것이다.

구체적으로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청각장애인이 있을 때 헐끗힐끗 구경하듯이 쳐다보고는 자기들끼리 쑥덕쑥덕거리는 것은 그들에게 불쾌감과 소외감을 안겨주므로 조심해야 할 행동이다. 또 청각장애인이 도움을 청할 때 모망거거나 무시해 비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응답하며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종이나 연필로든지 아니면 직접 인도해 주는 형식으로 그들의 불편함을 덜어 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을 대하는데 있어 조심해야 할 것이 표정이다. 청각장애인은 수화가 언어이지만 얼굴 표정도 언어이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그릇된 표정을 지으면 그들은 금방 알기 때문에 거짓이 없는 맑은 표정과 웃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한다.

청각장애인은 일반인에게 큰 것을 바라지 않는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소외시키는 것이 아닌 같은 공기를 호흡하는 똑같은 인격으로 대해주는 아주 당연한 것을 바라는 것이다.

〈손짓사랑회〉

투고를 환영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생활이 담겨진 시, 소설, 수필, 꽁뜨 등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260-3491·2

〈문화부〉

개교 86주년을 축하합니다

이사도라 던컨,
에디트 피아프,
프랑소와즈 사강,
카미유 클로델,

아름다워지는 일에도
누구보다 치열했던 그들…

지성의 향기와 함께
아름다움을 가꿔가는 대학생활이 되세요.

맨발의 춤으로
현대무용의 지평을 연 이사도라 던컨,
"장미빛 인생"을 노래하며
불꽃같은 삶을 살았던 에디트 피아프,
프랑스 문단의 매혹적인 작은 악마로 불리는
프랑소와즈 사강,
로댕의 연인으로 열정의 예술혼을
조각에 담았던 카미유 클로델…

예술에 대한 갈망과 지성의 탁월한 향기로
한 시대를 치열하게 살았던 그들입니다.
그 뜨거운 삶만큼 가슴 태우는 사랑이 있었으며
자신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몰두할 줄 알았던
여인들이기도합니다.

가장 빛나는 시간으로 기억될 대학생활 –
그녀들의 삶이 그러했듯 지성의 향기와 함께
자신만의 아름다운 빛깔을 가꿔가세요.
그 어느 누구보다,
뜨겁고도 아름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세요.

아름다움이 있는 대학생활 –
아모레 순정과 함께하세요.
아모레 순정은 17개 종합병원
피부과와 공동연구개발된
보다 안전한 민감성 피부
전문화장품입니다.

태평양화학

경주 임석 대동제 개막

오는 12~16일, 다채로운 문화공연 등

농산물판매·고시학사기금 마련 알뜰시장도

경주캠퍼스 '92임석 민주대동제'가 제9대 총학생회(회장=전충근·철학4)주최로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교내 및 경주시내 일원에서 열린다.

영화상영, 문화공연, 스승의 날 기념행사등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된 이번 대동제 세부일정을 살펴보면 △진군의 날(12일)=임석대동제 전야제 및 DKBS임석가요제(오후5시, 문무관), '닫힌교문을 열며' 영화상영(오후1·3·7시 소강당Ⅱ) △출정의 날(13일)—대동제 길놀이 및 개막고사(오전11시 교문정승앞), 연등제(오후5시, 문무관) 자연대 '출발 동국사탕'(오후2~4시, 녹야원) 언론 협의회 출범식 및 민주투사 7종경기(오후1시 녹야원) △투쟁의 날(14일)=전통혼례(오후1시, 녹야원), 연꽃제(오후5시, 녹야원), △연대의 날(15일)=스승의 날 기념행사(정오, 문무관) 전경·학생 한마당(오후2시, 대운동장) △민중승리의 날(16일)=백상연(오후5~10시, 문무관)등으로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한편 대동제 기간중 번외행사로 총학생회는 5·18광주혁명 사진전, 농산물 판매와 법정대의 고시학사기금마련을 위한 알뜰시장이 성건동 사거리에서 열린다.

경주 봄농활
경북영천일대

경주캠퍼스 봄농활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본교학생 1백여명을 비롯, 경주전문대, 관광대학생등 총1백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북 영천일대에서 실시됐다.

이번에 참가한 과, 단대별 농활지역은 △고경면에 인문대 철학과를 비롯한 7개학과, △자양면에 상경대 무역학과를 비롯한 4개학과와 전문대, △북안에는 한의대, △대청면에 자연대 생물학과를 비롯한 2개학과 및 의대, △신령에서는 전문대가 참가했다.

민주동문회
5·18등반대회

민주동문회(회장=신경림·영문·57졸)는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광주 무등산에서 제3회 '5·18광주민중항쟁기념 등반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등반대회는 동문산악부 주관으로 무등산 등반 및 망월동묘 참배가 있으며 본교 동문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국교과 백일장 실시

국어교육과는 지난 3일 수유리에서 한용환 학과장을 비롯한 교수, 재학생, 동문등 1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신입생환영 백일장을 개최했다.

운문부의 지정제목은 '門'으로, 장원에 임지향(국교1), 산문부는 '오월'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쓴 안진우(국교1)군이 장원으로 각각 당선됐다.

교수회
정년보장안 검토

교수회는 현재 대의원회를 통해 그동안 자체적으로 마련한 교수회 교원인사제도 개선안을 검토하면서 논의를 갖고 구체적인 안을 결정해 학교측에 건의키로 하였다.

교수회측은 부교수부터의 정년보장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한편 교수회는 오는 11일 대의원회를 소집해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를 거쳐 교수회 입장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노조
임금협정안 발효주춤

학교측과 직원노조간에 지난달 8일 타결된 92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 교육부와 노동부의 총액임금 5%이내등결의 종용에 밀려 구체적으로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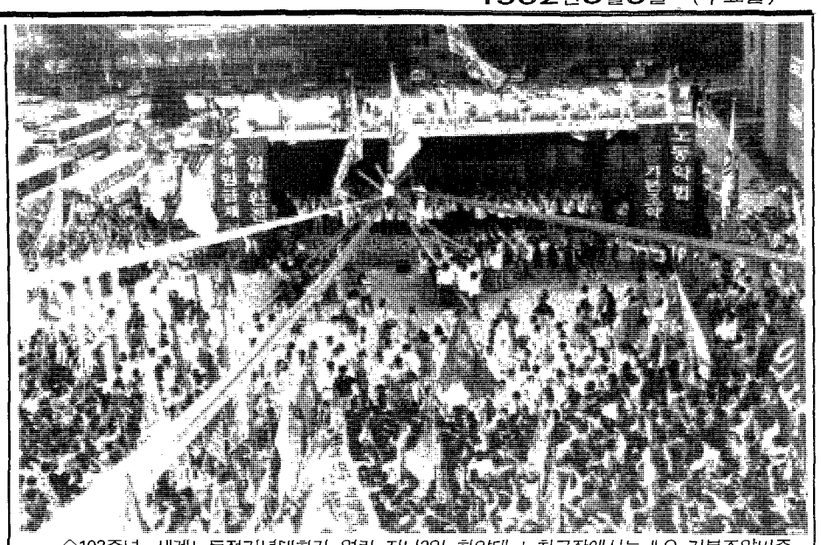
기본급 8% 인상과 체력단련비 지급 등으로 실질적으로 9.7%의 인상율로 합의한 본교의 임금인상이 노동계의 현안이 되고 있는 총액임금제 적용 강행방침으로 인해 교육부와 노동부의 보고과정에서 강력한 시정조치를 통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해설기사 참조〉

총장기배 고교농구
10일부터 예선

본교 제18회 총장기배 전국남녀고교농구대회가 사실상 폐지된 가운데 올해까지만 개최한다는 조건으로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 본교 체육관 및 장충체육관에서 대한농구연맹 후원으로 열린다.

남고부 10개팀과 여고부 9개팀이 출전한 이번대회에서 4강 진출팀의 선수들은 대학입학 자격이 부여된다.

경기일정을 보면 10·11일 양일간 예선을 본교 체육관에서 갖고 결선은 16일까지 장충체육관에서 벌어진다.



◇103주년 세계노동절기념대회가 열린 지난2일 한양대 노천극장에서는 ILO 기본조약비준과 노동법개정을 위한 전국노동자 공대위 발족과 함께 총액임금제 분쇄 및 92년 임투 승리의 결의를 다졌다. 〈조용수 기자〉

동국관 증축 활용방안 재검토

법대측 문제제기로 학생회간 마찰

동국관(L동)증축으로 학교측과 지난 3월3일 합의했던 활용방안 문제가 법대에서 문제를 다시 제기함에 따라 동국관내 4개 단과대 학생회간의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학교측은 이전의 합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으나 동국관내 4개 단대학생회는 다시 협의를 거쳐 법대의 요구안을 재검토하고 있는 상태이다.

학교 학생측은 지난 3월 △동국관 M503(북도 포함 1백80평)까지 5백석의 열람실을 확보해 줄것 △동국관(M동) 1층 교수연구실, 안보연구소 등 8개공간과 동국관(M동)5층 이승영(무역학)교수연구실을 학생회 자치공간으로 만들어 주는 대신 △법과대 전용열람실(L402)과 경상대세미나실(M210)을 학교당국에 반환할 것을 합의했었다. 하지만 법과대학에서 "전용열람실을 주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넓이의 학회공간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해 4개단대 학생회장들이 모여 의견을 수렴중이다.

이 회의에서 M503을 반으로 나눠 법대학생회의 공간을 마련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동국관지역 4개 단대의 운영위에서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게 된다. 각 단대는 운영위를 거쳐 지난 5일 야간강좌총학생회실에서 모여 합의를 이루려 했으나 야간강좌를 제외한 3개단대의 불참으로 회의를 갖지 못하고 오늘(6일) 총학생회실에서 다시 논의하기로했으나 법대의견수렴은 불투명한 상태이다.

교불련 학술심포지엄 개최

'한국의 사회문제와 불교' 주제로

한국교수불자연합회 (회장=한상범·법학)주최 불기 2536년 부처님 오신날기념 학술심포지엄이 '한국의 사회문제와 불교적인 대응'이라는 주제로 오는 8일 오후3시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열린다.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발표 및 토론내용을 살펴보면 △기조발표=한국의 사회병리 진단(한상범·법학) △제1주제=한국사회의 부패구조와 그 대응(이각범·서울대 사회학) △제2주제=범죄의 불교적 치유(이상현·경찰행정학) △제3주제=여성문제의 현황과 불교적 대응(이은영·한국외국어대 법학) 등이다.

진선묵동문 등단
'문학공간' 시 추천

진선묵(국어교육·92년졸)동문이 시 '삼촌의 동화'외 5편을 '문학공간' 4월호에 발표해 문단에 등단했다.

재학중 91년 본사주최 동대문학상 시부 본상을 수상한 바 있는 진동문을 추천한 박재삼 시인은 추천사에서 '개성을 지닌 수사법'을 지적하고, 소재와 표현기법의 참신성이 돋보여 앞으로의 시작활동에 기대가 큼을 밝혔다.

한편 진동문은 동국문학의 전통을 염두에 두고 시업에 정진하겠다는 각오의 등단소감을 전해왔다.

정부의 총액임금제 강력 요구에 학교측 난감

해설

본교 92학년도 노조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 일단락된 가운데 교육부와 노동부측이 사립대학 교직원 임금인상 억제방안으로 추진중인 총액임금제 압력으로 인해 본교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교의 경우 학교당국과 직원노조는 지난 4월중으로 임금협정을 마무리하면서 기본급 8%인상, 체력단련비 지급의 1.7%인상효과를 합해 결과적으로 총9.7% 인상된 내용으로 양측 공히 합의를 한바 있다. 하지만 학교당국은 총액임금제 적용압력으로 아직까지 교육부와 노동부측에 각각 임금인상보고를 못올리고 있는 상태이며 오는 8일 각대학 총무과장협의회를 통해 총액임금제를 둘러싼 문제의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총액임금 5%이내에서 임금인상을 적용할 경우 교직원의 반발이 강하게 일것이 예상된다. 이런 상태에서 직원노조측은 자인 조희영(경영학)기획조정실장은 "학교당국의 기본방침은 정부의 총액임금제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직원노조와의 협의안의 효과를 살리는 방안을 오는 11일 노사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학노동조합연합차원에서는 오는 7일 외국어대에서 '총액임금제 분쇄결의대회'를 열고 이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할것으로 알려졌다.

총액임금제 압력으로 지금까지의 임금을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한 상태로 지급하고 있는 본교와는 달리, 일부 사립대학에서는 92년 임금인상을 반영해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학당국과 교육부 및 노동부의 마찰은 이후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조인환 기자〉

사노맹 관련 본교생 3명 구속

면회불허 항의·규탄키로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이하 사노맹)조직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29일 이후로 구속자 가족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 안기부 항의·규탄 투쟁을 벌이고 있다.

사노맹·전민학련 검거자 60명중 54명이 구속되고 6명이 불구속 입건된 상태이며 현재 본교 출신 구속자는 지난 29일 연행 구속돼 대전 안기부에서 조사중인 이기섭(경제81학번) 동문, 경찰청 홍제동 분실에서 취조를 받고 있는 이정태(경영2)군, 지난 22일 구속된 조기현(철학 86학번)동문등이다.

이들은 면회조차 불허된 상태이며 단지 서울·광주 안기부에 구속·수사중인 4명만이 가족과 만날 수 있었으나 "이들은 수시중 당한 고문으로 인해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가족들은 전했다.

한편 구속자 가족대책위원회와 민중회의, 민가협등의 단체들은 오는 7일 오후2시 안기부앞 주자파출소와 홍제동 대공분실앞에서 항의·규탄농성을 벌일 계획이다.

이에 총학생회 인권위원장 오성은(독문4)양은 "농성에 필요한 지원과 선전작업 등을 중심으로 농성을 최대한 도울것"이라고 전했다.

총대 1/4분기 감사 미비

총학생회 5월말로 연기

각학생회의 자치기구들에 대한 1/4분기 감사가 몇개 학생회를 제외하곤 평가서의 미제출, 자료미비로 통산감사대체까지 대두되는 곳도 있어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11개 단대 학생회의 감사는 모두 끝난 상태이지만 최종 평가서는 불교대, 문과대, 공과대등을 제외하곤 총대의원회로 제출되지 않고 있다.

한편 총학생회 감사는 지난 11일 설시됐으나 5월투쟁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각 부서별 평가등이 부서장 부재로 이루어지지 않아 오는 7일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일시를 결정한다.

또한 동아리연합회는 감사자료가 기한을 넘겨 제출되었음에도 충분하지 못해 1학기 통산감사로 대체된다.

중앙교과과정학생위원회는 오는 11일로 감사일이 내정돼 있다.

한편 총대의원회도 이번 감사기간중 결집력과 지도력의 부재를 나타내 총학생회 1차경고외에 별다른 제재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1/4분기 감사의 총평가와 앞으로의 방침은 오는 7일 각 단대 대의원장과 총대의원회 집행부가 논의하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경주 노동절 전진대회 열려

총액임금제 분쇄 선전전

경주캠퍼스 '총액임금제 분쇄 및 노동절기념 노동자·학생 전진대회'가 지난 30일 정오 노동자, 학생 1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원효관 중정에서 열렸다.

이날 집회는 제9대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노수면(관경4)군의 사회로 민중의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주지역 대표 김윤근씨, 경주지역 공단협 의장 박규남씨의 연대사에 이어 4·30투쟁의 의의, 결의문 낭독순으로 진행된후 교내선전을 벌였다.

또한 오후5시부터 경주시내, 근화여고, 사거리 일대에서 '총액임금제 분쇄하고, 민중권력 쟁취하자'등의 구호를 외치며 가두투쟁을 전개했다.

한편 시위도중 인문대 학생회장 박유석(고미사4)군등 4명의 학생들이 경주경찰서로 연행, 약4시간후인 밤9시에 풀려났다.

지역개발대학원
체육대회

경주캠퍼스 지역개발대학원(원장=김시배·경제학) 체육대회가 지난 3일 오전10시 문무관에서 실시됐다.

원생들의 체력향상과 친목을 위해 열린 이날 대회는 김원장과 원생가족 1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배구, 줄다리기, 2인3각 경기등이 치뤄졌다.

제4회 동국기
야구대회

경주캠퍼스 동국야구부(회장=서영언·경제4)주최 제4회 동국기 쟁탈 야구대회를 지난 4일 정오 대운동장에서 개회식 및 예선 첫 경기를 가졌다.

지난해 우승팀 회계학과를 비롯, 총 9개 학과가 출전한 이번 대회는 올 가을에 열리는 영남리그 출전 선수선발을 겸하며 결승은 대동제기간중인 오는 14일 벌어진다.

학과소식

국문학과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3학년 수학여행을 용도로 떠난다.

영문학과

친선체육대회를 오는 13일 만해광장에서 갖는다. 또한 8, 9일 양일간 2학년들이 남이섬으로 모꼬지를 떠난다.

사학과

과내 소모임인 답사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자료수집과 타대학 사학과와의 교류을 목적으로 1차 서울지역 사학과 답사 실태조사(=세종대, 단국대)를 실시했다.

수학과

오는 7일 명진관(A308)에서 비상총회를 열고 등투현상및 진행, 모꼬지결산, 소모임소개등을 보고하고 등록금3%인하액에 대한 방침을 토의한다.

화학과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2박3일간 용유도에서 새내기들의 모꼬지를 갖는다.

정치외교학과

오는 10, 11일 양일간 우이동 사슴산장에서 집행부와 대의원들의 LT를 가진다.

경주캠퍼스 국문학과

국문과의 발전과 단합을 위해 오는 11일 시화전, 백일장, 문학법정, 문학퀴즈, 학술세미나, 시낭송회, 문학의 밤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부처님 오신날 봉축 법회

지난 2일, 5만여명 제등행렬…조계사 까지

불기 2536년 부처님 오신날 기념 봉축 '민족화합 남북통일 기원 대법회'가 본교 불교도 연합 학생 2백여명등 불자 5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일 여의도 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법회가 시작되기전 본교 학생들을 비롯한 대학생불교도연합 회원들은 '청년불자 결의대회'를 갖고 조계종 총무원장 서의현스님의 총선시 특정후보 지지 발언규탄등 불교자주, 혁신등을 외치며 선전전을 벌였다.

법회가 끝난뒤 참가자들은 행사장인 여의도 광장에서 조계사까지 제등행렬을 가졌다.

행렬 도중 백상모형물을 앞세운 본교 학생등 대학생불교도연합 소속 4백여명이 서대문로타리를 통과해 대열과 떨어져 종로 2가쪽으로 진출하려 하자 전경 2개중대가 가로막아 행렬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이후 특별한 마찰은 없었고 참석자들은 가두에서 '민주정부 수립'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리집회를 가진뒤 자진 해산했다.

중앙 교과위 설문조사

중앙교육과정학생위원회(위원장=구본권·법학4)는 '93년 교육과정 개편'에 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집하기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총 1천부를 각단대·과학생회로 배포해 3백부를 지난 5일 수거한 이번 설문조사는 현행 교양과정의 문제점과 방향성을 묻는 질문을 담고 있으며 분석결과는 다음주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설문조사는 내년 전공, 교양과정 전면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교과위로서는 여론수렴이라는 점에 있어 큰 의의를 들 수 있다.

◇지난 2일 제등행렬중 연등을 든 불자가 '불교혁신'을 외치고 있다.

수중탐험연구회 춘계탐사

본교 수중탐험연구회(Skin Scuba)에서는 지난 5일부터 오는 10일까지 강릉 경포대일대에서 제62차 춘계탐사를 가진다.

이번 탐사의 목적은 경포대일대 수중환경 보호 및 관찰, 자연보호를 통한 주민들과의 친목 도모, 대원들의 Skin Scuba 기술연마와 자질 향상을 위한 것이다.

영어수필 대회

재학생들의 어학실력 향상을 위해 매년 영자신문사 'The Dongguk Post'에서 개최하는 제7회 영어수필경시대회가 오는 19일 오후 5시 30분 명진관(A103)에서 열린다.

이대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학생은 대회당일까지 영자신문사(학생회관 지하)에서 배부하는 소정양식을 작성·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 대회의 부상으로 상장과 함께 최우수작 1편에 상금 10만원, 가작 2편에 상금 5만원이 주어진다.

5월 일정소개

△12일=정기학생대표자회의
△17일=정기학생총회
△18일=5·18광주민주항쟁 기념대회
△19일=민자당 재집권 저지의 날(국민대회)
△20~22일=목먹데동제
△29~31일=제6기 전대협 출범식(한양대)

◇시위진압 경찰의 여전한 폭력적 시위진압으로 한 학생이 사복체포조의 방패에 내려찍히고 있다.

노동절 1만동악인 실천결의대회

최용우등 방패에 찢겨 치료중

'노동절 기념과 총액임금제 분쇄를 위한 1만 동악인 실천결의대회'가 지난 1일 중앙도서관 앞에서 학생 2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대회는 노동절의 유래에 대한 간략한 보고와 임금체계를 왜곡시키는 총액임금제에 대한 본질 그리고 정부측의 논리에 대한 허구성을 폭로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총학 사회부차장 이진복(사회4)군은 안기부의 사노맹을 구속 사건과 관련 "사노맹은 진정 민중과 함께 했을 뿐이며 이같은 일은 민중진영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한것임에 다름 아니다"라며 강력히 투쟁할것을 밝혔다.

특히 이날 집회식상에는 구로공단내에 3사 연대투쟁을 추진중인 백산전자, 중원전자, 대한광학 노조에서 김진희(백산전자 노조원)씨가 현재 자신들이 벌이고 있는 고용안전, 체불임금 쟁취 투쟁에 대한 설명과 노동자 학생간의 연대를 촉구하고 정권, 자본에 맞서 힘있게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본대회를 마친후 증문에서 가진 실천행사에서는 시민들에게 현 정권의 부패와 부도덕성을 폭로하는 선전전을 벌였는데 전경과 학생들의 몸싸움 과정에서 학생3명이 부상을 입어 제일병원으로 이송해 치료중이다.

최용우(사회2)군이 머리10cm정도가 찢어지고 온몸에 타박상을 입었으며 양원석(회계3)군은 눈윗부분이 2cm가량 찢어졌다. 또한 이진복(사회4)군은 시위도중 날아든 돌에 맞아 허벅지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고 김세규 교수 추모비 건립사업

경주캠퍼스 고 김세규(국사학)교수 추모비가 오는 24일 오후1시 경북 영풍군 순흥면 묘지에 건립될 예정이다.

이 추모비는 지난 90년 3월 지병으로 작고한 김교수의 온정과 지도를 잊지 말자는 제자들이 주축이 되어 추진한 사업이다.

불상중수 만전 기해

학내 불교단체 기금 기탁

개교기념식이 열리는 오는 7일 함께 치뤄질 예정이던 부처님 증수불사 회향식이 공사진행에 차질을 빚어 연기되었다.

이에 행사준비 한 관계자는 "공사전 예상과 달리 철골 교체문제등 근원적인 공사가 요구돼 기간을 연장, 공사의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공사연장 이유를 밝혔다.

한편 불교학과 학생회(회장=김창모·불교3)는 오늘(6일) 오전10시 총장실에서 학교측에 불상중수 모연기금으로 지난해 등록금 반환액, 석림회 보시금 1백만원, 학내외동문 모연금등 3백9십여만원을 기탁했다.

또한 학내 직원불자 모임인 보현회에서 50만원, 교수불자협의회에서 30만원을 각각 학교측에 증수기금으로 전달했다.

'한국문학연구'발간

연구논문 16편 게재

한국문학연구소 (소장=김장호·국어교육)에서는 학술논문집 '한국문학연구'제14집을 이번에 발간했다.

이번 논문집에는 김장호교수의 '김억의 알베르·싸멩 번역을 살펴다'외 15편의 국어국문학관계 논문을 다루고 있는데, '전통적 문학사상의 근대적 전개 Ⅲ'이 특집으로 게재돼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남총련 제2기 출범식

서울지역 남부지구 총학생회연합(의장=김영하·중앙대총학생회장)는 강력한 민중연대를 통한 반민자, 반미투쟁으로 민주정부수립의 결의를 다지는 제2기 출범식을 지난달 30일 단국대에서 가졌다.

우천관계로 장소를 체육관으로 옮겨 진행된 이날 출범식에는 본교를 포함한 서남총련소속 9개대학 총학생회장단 및 소속학생 1천5백여명이 참가해 문화공연과 의장선출, 출범선언등의 행사를 가졌다.

이날 서남총련의장으로 선출된 중앙대 총학생회장 김영하(건축4)군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지난 3·24 부정선거진상규명과 지자제 선거실시등, 현정권의 독재연장음모저지 △총액임금제, 수입개방반대, 전교조 합법화등 민중생존권 사수 △반미, 통일조국 건설을 결의했다.

한편 서남총련은 오는 9일 민자당 창당일과 19일 민자당 대회에 맞춰 전면적인 반민자 궐기에 나설것임을 밝혔다.

졸준위 '인성및 적성검사' 실시

6일부터 앨범사진 촬영

졸업준비위원회(위원장=한문석·수학4)는 지난달 14일 앨범제작대행 업체인 새한스튜디오(대표=송광수)와 93년도 졸업생 앨범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늘(6일)부터 18일까지 불상, 동국관, 학림관주변등 교내일원에서 앨범사진촬영을 실시한다.

이번 졸업앨범은 지난 3월8일부터 4월8일까지 한달간 사전 시장조사를 마친후 지난달 14일 장용철 학생부처장, 총대의장 김성원(정외4)군, 총학총무부장 이혁찬(철학4)군이 입회한 가운데 대행업체와 앨범단가를 3만9천원으로 결정, 지난해보다 5천원인상한 상태에서 수의계약을 맺은 것이다.

한편 대행업체사이의 수의계약과 관련 한문석 졸준위원장은 지금까지의 공개입찰로 인한 비합리적인 가격경쟁유발 및 4학년 과대표와의 실질적 협의가 지연됨으로써 졸준위 사업전반에 걸쳐 차질을 빚어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취업전문회사인 (주)리크루트와 공동으로 본교 4학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성및 적성검사'를 오늘(6일) 오후5시30부터 학림관 소강당에서 실시한다.

과학적 인력관리를 위한 각 기업들의 인성·직성검사에 대한 비중이 점차 가중됨에 따라 취업을 준비하는 재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한편 경주캠퍼스 졸업준비위원회(회장=최덕규·법학4)는 지난달 29일 졸업앨범 제작을 위한 1차사진 촬영을 시작했다.

학사모와 스냅사진을 찍은 이번 촬영은 5월3일까지는 타 지역에 교생실습을 나간 학생들을 대상으로 촬영을 마쳤으며 4일부터는 전체 34개학과의 사진촬영을 시작했다.

집회중 화상입은 최용배군

사범대, 치료비 모금활동

명지대에서 지난 25일 열린 고 강경대열사 1주기 추모집회 후 가두 선전전 도중 3도의 화상을 입고 서대문 직십자병원에 치료를 받던 최용배(국교2)군은 5주진단을 받고 입원·치료중이다.

병원측은 양손과 목주위에 입은 화상으로 수술을 받았으나 아직 왼손의 상처가 아물지 않아 원래 3주진단에서 2주간의 치료가 더 요구된다고 밝혔다.

몸에 화기가 안 빠져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던 최군은 입원한지 11일 이 지난 현재 오른손, 얼굴의 붕대를 푼 상태이다.

한편 사범대 학생회는 병원기관 마련을 위한 T셔츠판매를 계획하고 있으며 몇몇 뜻있는 학생들이 교내 모금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편지쓰기, 병원 방문하기등의 온정의 손길이 전해지고 있으며, 이에 최군은 "친구들을 보니 미안하고 그들과 함께 하고 싶다"고 말했다.

직원노조 체육대회

본교 직원노조 (위원장=이건배·경상대 교학계장)는 세계노동절 기념 체육대회를 지난 1일 조합원 1백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체육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노동절을 맞이해 조합원의 친목과 단결을 한층 높이는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배구, 족구, 탁구, 피구, 2인3각경기, 발목은 풍선터뜨리기등이 진행됐다. 또 여직원회는 별도로 일일 먹거리 장터를 개설해 뒷풀이를 무료로 제공했다.

회전무대

집기는 일년용

○…메년 집기가 부족하다고 아우성인 학생자치기구들 덕택에 학생과 직원들은 모처럼만의 '직원체육대회'참가도 반납했다고.

지난 1일 몇몇 학생회에서 신청한 학생회실 배치용 트럭 3대분량의 책상, 의자, 캐비넷등을 옮겨놓느라 분주했는데 직원들은 연례행사처럼 들여놓는 새집기에 못내 절약정신이 아쉬운 표정.

책상을 트럭에 옮겨 싣던 한 직원은 "에그, 이 책상도 얼마나 비딜런지"하며 안타까워 하기도.

덧나는 수 있어

○…이제 반민자투쟁의 열기가 고조될 5월로 접어들면서 고심하던 안기부가 구데의연한(?) 초반 진압작전을 펴고 있는듯.

지난달 29일 안기부는 사노맹·전민학련 조직원 60명을 검거해 이중 54명을 구속하고 6명만을 불구속 입건하는등 전면적인 강압수비를 벌이며 의기양양한 모양.

항상 위태로운 시기만 되면 터뜨리는 충격요법을 보며 한 학우왈 "초반 기선제압으로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구속자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항의·규탄농성등을 투쟁의 시발점으로 받아 안을걸요."

손가락 까딱합시다

○…빈 강의실이 한낮의 강의시간에도 전등불을 환하게 켜놓아 보는 이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프리게 하는 경우가 많아.

녹색 미화원 화이팅

○…역시 부지런히 쓸고 닦고 줍는 것이 상책인 모양. 지난달부터 학생들이 단대별로 동악청소하기운동을 전개하여 주위를 흐뭇하게 했는데, 한편으로 이번 학기들어 실내외의 청소상태도 사뭇 양호해졌다고. 학교당국의 교정환경 관리솜씨가 이제 이력이 붙은 모양.

아침저녁으로 녹색목장의 청소요원들이 부지런히 환경미화작업에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본 회전무대가 한마디 "설겆이도 중요하지만 에당초 덜 어지럽히도록 우리함께 소중히 여겨야죠."

손가락 한번 까딱하면 절전효과·동국사랑인줄 왜 모르는지

수업이 끝나면 강의실을 다 빠져나가기 바쁘고, 빈 강의실에 켜진 불을 보아도 무심히 지나치는 학생들이 대부분인 실정.

이것을 본 생각있는 한 학생 왈 "형설지공은 못하더라도, 손가락 한번 까딱하면 될 일인데 필요없이 전력낭비하는 것은 국가자원 손실도 그렇거니와, 동국사랑 절핍증이 아닐까요?"

5월의 문화달력
개교 86주년을 축하합니다

1992 5 MAY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4	6				1 행 연등제/동국대 음 오페라 감상 세빙리아의 이발사/한양대 음 EMI뮤직 비디오 쇼/ 계몽아트홀	2 행 연대 신방과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노천강당 전 한국종이미술공모전/ 예술의전당미술관 (5/1~5/10)
3 공 노찾사공연/ 학전소극장 (~5/6) 338-9948 전 이재선 염색전/ 이태원갤러리방 (5/3~5/4)	4 연 남자는 남자다/ 동숭아트센터소극장 (~5/5) 연 마법의 동물원/ 예술극장 한마당 (~5/17)	5 기 인형극 홍부와 놀부/ 구룡소극장 (~5/10) 577-1987 무 악탈/문예회관 대극장	6 연 꾸러기들의 봄동산/ 온누리 예술관 (~5/6) 308-3141 무 삶 그 고통의 끝을 보다/ 문예회관 대극장	7 행 연대응원단 '아카라카 온누리에'/ 연대 노천극장 전 개관기념전/세종갤러리 (5/6~5/22) 776-1811	8 공 기묘히메 만디라, 남도들노래/ 동숭아트센터 소극장 (5/6~5/8) 741-3391 연 작은영웅 말콤/ 구룡소극장 (~5/10) 577-1987	9 연 고도를 기다리며/ 동숭아트센터소극장 (5/9~5/28) 전 현대미술 20인의 표상전/ 갤러리 이콘 (~5/9) 516-1503
10 행 부처님오신날기념행사/ 동국대 연 해연 /충돌	소극장 (~5/14) 743-7778 연 행복한 나날들/ 엘칸도 예술극장 (~5 10) 776-8035	11 연 두여자 두남자/ 우역센터 현대백화점 현대토아트홀 (~5/17) 연 신의 아그네스/ 실험극장 (~6/1) 765-4981	12 행 대동제/건국대 (5/12~5/15) 행 통일노래 한마당/ 한양대	13 행 107주년 무악축전/ 연세대 (5/12~5/16) 음 돈키호테/롯데월드 예술극장 (~8/30)		
17 연 피터팬 인켈아트홀 (~5/24) 741-2995 연 알가입구 바탕골소극장 (~5/24) 공 우리가락 한마당/ 세종문화회관	18	19 음 성대 실내악단 연주회/ 학생회관 소강당 (15 00) 행 호민 대동제/동의대 (5/19~5/22)	20 전 서화 초대전/영남대 문화예술회관 (5/19~5/24) 행 청파 대동제/ 숙대 (5/20~5/22)	21 행 낙산한마당/ 한성대 (5/20~5/22) 행 대동제/중대 (5/20~5/22) 연 서강 연극회 '성난 알몸로 돌아보아라 대강당 (5 20~5 24	22	23 행 개교 40주년 기념행사/ 충남대 행 연세대 연무제 63빌딩 국제 회의장 (16 00)
24 31 기 판소리 심청가/ 예술의전당 연못가 (5 31) 전 한미작가 교류전/ 중방플라자 미술관 (5/26~6/3)	25 행 5월제/ 서울대 (5/25~5/28) 행 대동제/성대 (5/25~5/28)	26 경 서울대인의 포럼 '사랑의 의미' / 26동 강의실 (15 00) 무 각정의 세월/ 문예회관 대극장 (5/25~5/26)	27 행 대동제/세종대 (5/25~5/27) 음 오페라공연, 취가로의 결혼/ 충남대 (5/25~5/28) 전 부산회랑미술제/ (5/25~6/10)	28 봉 장애인을 위한 자선음악회/ 이대살롬중창단 (대강당 19 30) 행 홍익응원 대제전/ 홍대체육관 (18 00~20 00)	29 행 대동제/이대 (5/28~5/30) 행 성균관대 응무제 63빌딩 국제회의장 18 00 행 중앙대 응무제 대학원 지하 전시장 5 28~5 30	30 전 출토유물 특별전/ 충남대 박물관 (5/25~6/25) 행 고려대 무호축전 인촌 기념관 17 00 행 중앙대 청룡 무예제/ 중대 대학극장

공 공연 무 무용 전 전시 행 행사 음 음악 연 연극 기 기타

지구에 지하인들이 살고 있다!

지하 2000m에 지하인들이 살고 있다.
그 지하인들은 태양의 중심에서 분출되는
'뉴트리노' 라는 미세한 입자를 잡아내고 있다.
우주의 질서에 종속되어 있는 지구의 내일을
점치기 위해 점장이의 딸랑이를 흔드는 대신
땅 속에 연구소를 차려놓은 것이다.

우리는 시간에 종속되어 있다.
그리고 내일을 점치는 딸랑이도 없다.
우리에겐 오직 젊음이 있을 뿐이다.
젊음은 예민하고 섬세하며 모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연구소와 같다.
지하 2000m의 연구소보다 더 어두울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 젊음의 연구소에서
미세하게 지나가는 희망의 빛을 잡아야 한다.
내일을 향한 힘찬 걸음을 내딛기 위해!

캠퍼스의 5월은
지하 2000m에서 태양의 중심을 바라보는
새로운 도전의 시간입니다.

문화달력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여러분들이 마련한 소중한 대학행사를 알리기 위해
現代그룹이 제공해 드리는 본란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자료로 만들어집니다

널리 소개하고 싶은 문화행사가 있으면 행사 전달 25일까지
現代그룹文化室「서울 종로구 계동 140-2, 전화
746-3347」로 알려주시면 성심껏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現代

진단:문화선동대

대중화 추세가 몰고온 집회장…"열광!열광!"

◇지난해 경희대에서 열린 범민족대회 — 학우들이 불타는 탱고에 맞춰 즐겁게 춤추고 있다.

우리 생활속에 파고드는 민족적 양식 개발돼야
군중적 놀이 되어가는 문선공연…불타는 탱고

1. 글의 문제제기

"문선대 공연이 있겠습니다." 비장한 음악이 깔리고 빨간 머리띠 두른 선동대앞으로 "조선 인민이여 총궐기하라!" 노동자의 쇠망치로, 농민의 시퍼런 낫으로 청년의…." 절규하는 목소리 앞에 학우들 결의를 세울즈음 '철컥' 플레카드가 투쟁의 시작을 알리다.

"문선대 공연 준비 됐어요?" "투쟁!" "열광, 열광…." "조국 통일의 미친 춤바람 불타는 탱고" 학우들 들썩들썩, 어느새 손에는 라이터불 번쩍번쩍, 학우들 가슴마다에는 통일의 확신이 한다발씩 가득.

독자는 두 단락을 비교해 보면 집회분위기, 특히 문선대의 형식이 많이 변모했음을 느낄 것이다. 재미있어지기는 했는데 예전에 비해 뭔가 부족한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나쁜건 아닌것 같고…. 한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 집회 안에서 문선의 변모과정과 함께 이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문예운동의 전반적 흐름과 대중운동의 발전, 학우들의 정서에 대해 깊이 논의되는 속에서 이야기할 부분이나 간단히 위에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만 다뤄보고자 한다.

2. 변화된 양식

먼저 문선이 예전 보여주기 식에서 벗어나 대중들과 함께하는 내용과 형식이 갖추어져가고 있다.

여기서 함께 한다는 것은 단지 재미있고 이해하기 쉬운 것 뿐만 아니라 문선을 준비하는 학우들이 대중들의 삶과 정서에 근거한다는 것이고 학우들 또한 문예를 자기것으로 체득하려는 과정이라는 점이다.

과거 문예를 바라보는데 있어서 대학 문예운동을 지식인 문예운동의 한 범주로만 이해해 단지 선전선동의 메개로만 여겨왔던 오류에서 벗어나 청년학생의 삶과 투쟁을 형상화하고 학우 대중 자신의 것으로 전환하기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문예가 대중의 것으로 돌아간다는 것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진정한 글쓰기는 쓰는 사람의 자기해방의 과정이자 동시에 쓰는 사람과 읽는 사람이 속한 그 집단의 자기 해방의 과정입니다. 이땅에서 글쓰기는 필연적으로 외세와 분단의 사슬에 묶여 있는 민족의 해방의 과정이며…진정한 글쓰기가 소수의 것이 아닌 대중의 것으로 되돌여야…'—자주적 문예운동中에서.

둘째, 이러한 '함께 하기'의 양식이 군중적 놀이가 되어가고 있다.

예를들면 이맘때 전대협의 '조국과 청춘'의 춤은 청년학생들의 범주를 넘어 노동자, 농민에게까지 급속히 확산, 진보세력의 군중적 놀이 양식이 되었다. 통일된 해방의 거리에 모든 민중이 나와 한바탕 출 수 있는 춤이 있다는게 기쁘지 않은가?

셋째, 학우 한사람 한사람 생활단위의 모습이 형상화 되고 있다.

통일노래 한마당을 준비할 즈음에만 마련되었던 창작곡이 이제는 집회공간내에서도 학우들의 정서와 자주적 삶을 형상화하고 우리의 구체적 생활양식의 지향점을 표현하고 있다.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우리 학생회기'노래나 집회 공간에서의 활기찬 율동들은 단적인 예다. 필자는 애국적 문예운동의 한 성과가 일정 집회 문선의 변모를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고민, 해결해야 할 과제는 분명 남아있다.

3. 앞으로의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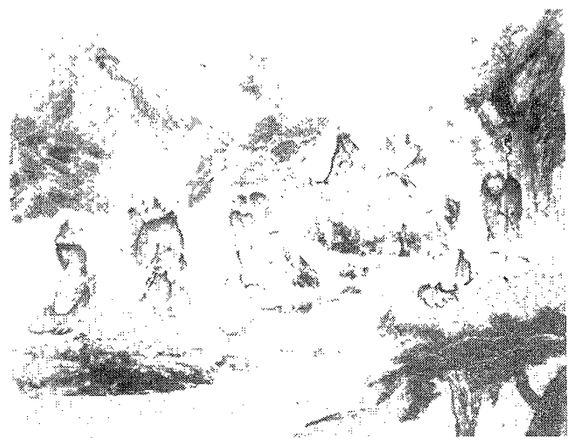
대중화라는 명목하에 자칫 제국주의의 문화를 무작위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때 청년 학생 정서에 맞는 창조적 민족적 양식이 개발되어야 하며, 문예유격투쟁이나 집회공간 등에서 선명하게 부각 되어야 할 형상화에 대한 연구와 일상적인 창작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민족자주의식을 드높이고, 민족대단결, 민주주의, 노동자 계급의 의식을 갖게하는 창작물로 자기 삶을 반영하는 참다운 문예일꾼이 있고, 이것을 향유하고 자기삶을 비춰보는 청년학생이 있는 한 조국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이러한 상호작용속에 대학내 문예운동과 집회문선의 발전이 있고 우리는 모두 아름다운 인간이 되어가고 있다.

박 재 원〈불교대 인철과〉

◇지상전시 - 김종섭 불화전(佛畵展)

6일부터 12일까지 조형 갤러리



▲覺. 130×100cm, 1992

◀觀音圖. 42×82cm, 1992

문화단신

공 연 안 내

◇**시라노**…잃어가는 꿈과 상상력의 결여 속에서 진정한 의미의 사랑과 영혼의 울림을 전할 수 있다는 내용. 오는 14일부터 31일까지 오후4시, 7시30분. 학전소극장. 763—1633.

◇**행복한 나날들**…우리 어른들이 현재 처해있는 절망과 달레마를 표현. 오는 14일부터 내달4일까지 오후 4시, 30분, 7시30분. 엘칸토 예술극장. 776—8035.

◇**고도를 기다리며**…우리의 방황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조망. 오는 9일부터 28일까지 오후4시30분, 7시30분. 동숭아트센타 소극장. 741—3391.

◇**동승(童僧)**…사미승 도념의 속세에 대한 동경을 그린 작품. 오는29일부터 내달30일까지 오후4시30분, 7시30분. 청파아파트홀. 312—8181.

강 습 회

◇**5월 민족문화교실**…'우리마당문화학교'에서 개최하는 민족문화예술 보급행사. 풍물·탈춤·단소·사진. 오는11일부터 내달7일까지 오후 7시, 7시30분. 우리마당. 313—7169.

◇**14기 사회사진교실**…우리마당 '시간예술연구소'가 사진기의 사용법 및 사진이론과 촬영 및 암실의 실습작업을 내용으로 주최. 오는13일부터 4주간 수·토요일 오후 7시30분. 우리마당. 313—7169.

이달의 시

수양버들을 보며

조 현 설〈시인〉

참가에 일렁이는 한 그루 수양버들
겨울 끝에 봄이 일고 봄 지나 겨울 일고
어느 사이 내 안에 들어와 사는 그대
지상에 흔들리는 한 그루 수양버들이여
사랑이라 부를까 조국이라 부를까
한 해가 가고 한 시대가 가고
그대 어깨에도 내 어깨에도
하나 둘 역사의 나이테 짙게 패이어도
하루에도 몇 번 씩 그대를 바라보며
무슨 그리움처럼 새기고 새기는 건
만만의 가는 잎새 저리 오래 흔들리는 것
조국이라 부를까 사랑이라 부를까
이른 봄에서 살얼음 깔리는 겨울까지
만만의 푸른 희망으로 일렁이는 그대

꼐아리

▲대 학생활을 원만히 하는데 꼭 갖춰야할 요건이 있다고 한다. 그것이 소위 ABCDEF로 통하는 필수학점인데, A는 alcohol(술), B는 billiard(당구), C는 cigarette(담배), D는 date(데이트),E는 electronic game(전자오락), F는 friend(친구)라. 언뜻 들으면 참 재미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론 웃음의 차원을 넘어 우리가 진리탐구라는 주목적 달성을 위해 대입이라는 어려운 관문을 뚫고 들어온 것을 되새겨 볼 때 과연 이러한 사항이 꼭 필요할까. ▲지난해 우리학교 주변의 총3백16개 상점을 조사한 결과 호프가 27개(8.5%), 레스토랑 및 카페가 51개(16.1%), 분식점·식당·주점이 48개(15.2%), 당구장과 오락실이 19개(6.0%)로 1백45개(45.9%)를 차지했다. 거의 절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올해 들어서는 노래방이란 곳이 보란 듯이 자리를 잡았고, 새로 짓는 건물마다 '술집 없는 빌딩 없다'라는 식으로 푸섭게 파고들고 있다. '대학가'하면 으레 술집이 떠오르게 마련이다. 그래도 우리학교는 준수한 편이다. 신촌이나 화양리는 록카페니 노래연습장이니 하는 곳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물론 공부가 전부일 수는 없다. 어느정도의 휴식과 오락은 활기를 불어 넣어 주기에. 그러나 전자와 후자가 뒤바뀌어서는 안될 것이다. 예를들어 하루에 생맥주 한잔과 당구 한게임, 담배 한갑, 전자오락 한게임, 커피 한잔을 소비한다고 할때 평균 5천원정도가 투여된다. 한편 예년과 달리 한양대나 연세대 등 총학생회에서는 '록카페'퇴치 서명운동, 면학풍토 개선을 위한 교수·학생 토론회 등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향락·과소비를 지독히(?) 싫어하는 대학생들에게 상당히 걸맞는 사업으로 보인다. ▲지난 2일부터 5일까지는 충북 제천에서 춘계농활이 있었다. 깊게 패인 주름살과 뼈마다 굵어진 손으로 우리의 땅을 일구는 농민들. 해마다 등록금을 내야할 철이 다가오면 등록금을 어떻게 해서라도 마련하기 위해 '논몇마지기라도 팔아야지'로 대표되는 부모님의 한숨섞인 목소리를 들어봤을 것이다. 5월은 감사의 달이다. 백화점에서 산 값비싼 선물보다 자본의 논리에 찌들지 않은 건강한 몸과 마음, 앞의것과는 다른 학점을 준비해봄이 어떨까.

〈뭇〉

또다른 학점

찰개구리

김 태 준
〈16〉

잠깐 생각해봅시다 ⑨

'우리'의 부모님께 꽃한송이를

오는 8일은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정성껏 준비한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드리는 '어버이날'입니다.

옛날 어린시절 어버이날을 맞을땐 며칠전부터 예쁜 색종이로 꽃잎을 한장한장 만들어 부모님을 비롯해 이웃집 할머니 할아버지께도 달아드린 기억이 새롭습니다.

'부모님'이라면 나를 낳아주신 분들을 말함이겠지만 좀더 깊게 생각하면 어찌 내부모만 부모라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주변에서 이런저런 알게모르게 도움을 주시는 어른들, 바로 그런분들 모두가 나의 우리들의 부모님이 아닐런지요.

동악의 교정에도 내 부모님 같은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수님들을 비롯해 각건물을 지키시는 수위아저씨, 식당에서 맛난 식사를 만들어 주시는 분들, 동악의 청결함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시는 분들…. 우리를 위해 바로 나를 위해 애쓰시는 부모님들입니다.

자, 돌아오는 이번 어버이날은 주위의 고마우신 '여러부모님'께 정성어린 꽃한송이라도 달아드리는 날로 만들어 봄이 어떨까요…。

〈문화부〉

인간존중의 경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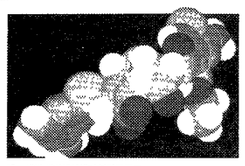
개교 86주년을 축하합니다

럭키금성 기업문화 '脫'시리즈—①
럭키 제4세대항생제 개발편

매일 아침, 연구복을 입는 순간은
고정관념의 옷을 벗는 순간입니다.

脫
固·定·觀·念

고정된 사고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항생제 신화'를 탄생시켰습니다.



제 4 세대 세파계항생제 분자구조도

럭키금성의 진취적인 기업문화가 창조적 결실로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의 열악한 신물질 연구환경 속에서 단 6명의 인원으로 개발 성공한 제4세대 항생제—
불가능의 벽을 깨려는 도전과 개척의지,
이를 마음껏 펼칠 수 있었던 진취적인 기업문화가 어우러져 이루어낸 자랑스런 쾌거입니다.

럭키 신규 세파계 항생제 개발팀장 김용주박사
"'일당백'의 우수한 두뇌도 두뇌지만 서로의 강한 개성을 한데 묶어준 연구 분위기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연구에 들어가기 전, 고정된 사고에서 벗어날 것을 특히 강조해온 김용주 박사(36)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팀 분위기를 위해 힘쓰는 팀장이지만, 그 스스로는 신물질 연구를 위해 사흘 밤낮을 말 한마디 없이 보낸 고집과 침묵의 연구광이기도 하다.

럭키금성